

경상북도의사회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

# 경북의사회

2013 New Year Vol.48



경상북도의사회  
Gyeongsangbuk-do Medical Association

# 회원 의사면허신고 안내

- 미신고시 면허 효력 정지처분 진행 -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의료법이 개정·공포되어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회원님께서 반드시 의사면허신고(일괄신고 기한 : 2013. 4. 28 까지)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사면허신고** : 본회 홈페이지(<http://www.igbma.or.kr>) 로그인 후 '의사면허신고센터' 배너 클릭
- ▶ **소속 의사회 구분**
  - 개원 및 근무 : 소속 근무지 기준      - 휴직회원인 경우 : 거주지역 기준
  - 휴직회원이 아닌 경우 : 근무처(재학생은 학교 소재지) 지역 기준
  - 군진 및 공보의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 ▶ **2011년도 연수교육을 이수(년 8평점 이상)하지 않은 경우**
  - 2011년도 미이수자일 경우, 일괄신고기간 내에 개설된 연수교육 8평점을 이수한 후 신고



## 신고방법



※ 문의처 : 경상북도의사회      053-941-7785  
 면허신고 관련 대한의사협회 총무국      02-6350-6512, 6520  
 연수교육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사학술국      02-6350-6560, 6559



## 내일의 해

세상살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 참 복잡 합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 세상인지  
 누가 좋은 사람인지  
 잘 사는 게 뭔지  
 행복은 있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온통 다 복잡하고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언젠가 좋은 세상이 올 것이고  
 좋은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  
 결국 좋은 세상에서  
 좋은 사람 만나  
 잘 사는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어라 해도  
 내일은 내일의 해  
 새로운 미래가 뜹니다



김 의 흥 원장  
 김의홍산부인과의원(구미)

# Contents

# 경북의사회보

2013년 신년호(제48호)



- 03 **신년시**  
내일의 해 · 김의홍
- 05 **신년사**  
의사회와의 동행, 진정한 발전을 가져오는 지름길입니다 · 정능수  
'미완성' · 김광만  
의사들의 힘을 모아 전진을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 노환규
- 08 **포토뉴스**  
전북 · 경북의사회 친선행사 이모저모  
지역의사회와 연계한 연말 복지시설 방문
- 13 **회무소식**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대정부 투쟁  
제27회 전북 · 경북 친선행사서 화합과 우의 다져  
2012년도 경상북도의사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 18 **회무단신**
- 21 **회원동정**
- 22 **의료기관 개원현황**
- 23 **공지사항**  
제4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공모  
제12차 의원급 의료배상공제 가입안내
- 25 **분회 및 병원소식**
- 29 **의학 및 건강칼럼**  
영유아기 뇌 발달에 있어 철분의 중요성 · 김애숙
- 32 **참관기**  
경북 · 전북의사회 친선행사를 마치고 · 임철수
- 34 **회원문예**  
시 \_ 고목 · 최해곤  
수필 \_ 중년의사의 고백... 제가 환자가 되어보니... · 정상윤  
오일장에는 삶의 이야기가 있다 · 김인정  
다사다난했던 2012년 임진년 · 김우석  
여행에세이 \_ 영덕을 즐겨라 · 임종식
- 46 **추천도서**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 이복수

발행인 정능수  
편집인 김중영  
발행일 2013년 1월 11일  
발행처 경상북도의사회  
702-824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82  
TEL. (053)941-7785 FAX. (053)941-5557  
홈페이지 www.igbm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gbma  
제작처 선진에드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600-5  
TEL. (053)555-3336 FAX. (053)556-3273

### 주요연중 행사일정

2012. 4. 5	제40회 보건의 날 기념식	2012. 10. 26	제47호 경북의사회보 가을호 발간
2012. 4. 29	제64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2012. 10. 27~28	전북 · 경북의사회 친선행사
2012. 5. 11	제45호 경북의사회보 봄호 발간	2012. 11. 4	경북의사회 추계종합학술대회
2012. 5. 13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도명산)	2012. 12.	연말 복지시설 방문
2012. 5. 19~20	제34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2013. 1. 10	시군의사회회장 및 임원 연석회의
2012. 6.	2012년도 회원정기신고	2013. 1. 11	제48호 경북의사회보 신년호 발간
2012. 7. 7~8	본회 임원 및 시군의사회회장 워크숍	2013. 2. 23	2012년도 전체이사회
2012. 7. 23	제46호 경북의사회보 여름호 발간	2013. 3. 7	2012년도 회무감사
2012. 9. 2	의료봉사 기금마련 회원친선골프대회	2013. 3. 23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2012. 10. 7	제1회 한마음 전국 의사 가족대회		

## 의사회와의 동행(同行), 진정한 발전을 가져오는 지름길입니다



2013 계사년(癸巳年)의 희망찬 새 해가 밝았습니다. 경상북도의사회 모든 회원님들께 금년 한해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은 경북의사회가 1943년 10월 대동한 후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저희 42대 집행부는 작년 4월

출범하여 경북의사회의 전통적인 장점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의료계의 변화를 접목시켜 소통과 참여를 통한 회원들의 단합,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습과 기부문화를 통한 존경받는 의사상 구현 그리고 선도적 의료정책을 개발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회원님들도 의사회와 동행(同行)해 주시길 믿으며, 저 또한 회원님과 의사회만 보고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지난 한해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새롭게 시작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면서 우리의사들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자성하며 한마음이 되어 단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의사회는 2번의 토요일 무준법투쟁에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함으로써 경북의사회의 전통과 위상을 우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경상북도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전국의 의사 및 의사가족 3만명이 모여 '제1회 전국 의사가족대회'를 성대하게 치루고 '착한 손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우리 의사들의 단결력과 자정능력을 대내외에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우리 의료계가 정치세력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모바일 선거 참여, 문재인 담쟁이펀드 모금, 박근혜 행복펀드 모금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7070명의 전국의사들이 미래의사포럼을 구성하여 박근혜 대선후보 공개지지를 선언 하였습니다. 그 당시 7070명의 의미는 70% 중산층을 회복하고 70% 의사 및 환자가 만족하는 의료정책을 발표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는 우리 의사회원 자신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표를 움직이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국민도, 의사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의료정책을 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제1회 의사가족대회에서 약속하신 1차의료 살리기와 현장 전문가 의견이 많이 반영된 의료정책을 실천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전세계에서 모범적 보험제도가 되고 의료수준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기저에는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저수자로 최상의 진료를 구해왔으나 앞으로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진료와 적절 비용을 부담하는 의료제도로의 대폭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국가적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되는 의료 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또한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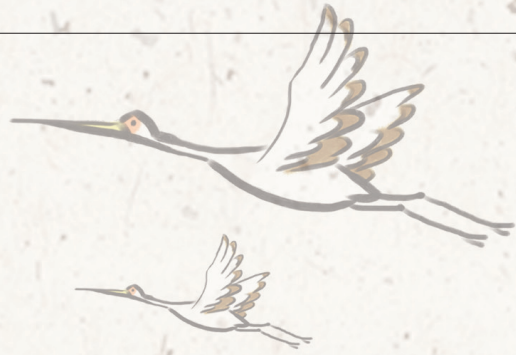
경상북도의사회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의료봉사단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300만 도민들의 건강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및 의료봉사기금 마련을 위한 '제1회 경상북도의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회원들께서 봉사기금을 기부해주셨으며 현재까지도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에 해외의료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KBS 대구방송, 대구 · 경북적십자사, 대구시의사회와 더불어 다문화가족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료건강 검진사업을 통한 질병에 대한 조기발견과 동시에 치료에 도움을 줄 계획이며, 경상북도의 다문화가족 친정마을 주민들의 건강검진과 진료도 할 예정입니다.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 회원님 가정에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정 능 수

# ‘미완성’



경상북도의사회 새 집행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1년차를 지나려고 합니다. 그동안 어느 역대 집행부 못지않게 역동적으로 회무를 수행하신 회장님 이하 집행부에게 대의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물론 저도 제 능력에 과분한 대의원회 의장이란 직책을 수행한 지가 1년이다 되어 갑니다. 수행이라고 해 봤자 아직까지는 다달이 서울 몇 번 올라간 것이 다 입니다만. 사실 의사회 일이 시간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참 어렵습니다. 환자도 봐야지 대외행사는 거의 진료시간인 대낮에 열리지 갈등이 많습니다. 혹자는 그래도 지가 좋으니까 맡은 것 아닌가 지가 하고 싶으니까 출마한 것 아닌가 하시지만 우리 의사들의 여러 가지 정황상 어쩌다 발을 들어놓다 보니까 빼도박도 못한 상황인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에서 일하시는 집행부 임원들 잘 토닥거려 주시고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그 처지를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년의 우리 의사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미완성’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회원 직접선거로 선출된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된 제37대 의협회장 선거, 끈이은 불공정한 건정심의 탈퇴, 하향평준화인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현실성 없는 응당법의 시행, 잇따란 장외 집회는 제1회 한마음 전국 의사 가족대회에서 하나로 마음을 모았고 연말의 토요휴무투쟁 등으로 숨막히

게 달려온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노환규 집행부의 의욕에 찬 출발, 시도 의사회장단의 고뇌에 찬 결정 그리고 민초 회원들의 함께 하는 열정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채로 2012년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꾸는 이 바램은 일년초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히 돌봐야 할 우리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거나 뽑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따뜻한 햇볕도 쬐여줘야 합니다.

실제로 즐거운 음악을 들려준 꽃이 더 향기롭고 예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군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미완성’을 더욱 예쁘게 자라나도록 가꾸어 봅시다.

마지막으로 유안진 님의 ‘송년에 즈음하면’이란 시의 마지막 구절을 소개하면서 들뜬지도 모를 연말연시를 차분히 정리할까 합니다.

(상략)

송년에 즈음하면

갑자기 철이 들어 버립니다

일 년치의 나이를 한꺼번에 다 먹어저

말소리는 나직나직 발걸음은 조심조심

저절로 철이 들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 광 만

# 의사들의 힘을 모아 전진을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2013 기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분들께 평안과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의료계는 지난해에도 변함없이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저수가

정책과 더욱 더 강화된 통제와 관리,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밀어붙인 만성질환관리제와 포괄수가제, 의료분쟁조정법, 도가니법과 응당법 등이 의료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고 환자를 위한 최선진료의 기회는 더욱 멀어져간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건보공단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인상안을 제시하여 수가협상을 결렬시켰으며 거기에 더해 무리한 부대조건의 요구는 끝내 전국 의원의 60%가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한 대정부투쟁’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렇게 힘든 한 해였지만 의사들은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역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던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조정법 등 의료계가 합의하지 않은 제도는 제대로 자리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비 오는 서울역에서 의료악법의 철폐를 외쳤으며, 10월에는 무려 3만명의 의사 및 의사가족들이 모여 전국 의사가족대회를 치름으로써 의사들의 단결력을 대내외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보여 준 가장 큰 변화는 정치세력화에 대한 실천이었습니다. 의료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변의 표를 움직이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대통령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13년 새해, 의사 사회는 몇 가지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의료계는 잘못된 제도를 하나씩 고쳐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저수가 중심의 건강보험정책이 의료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편법에 의존해야만 했던 제도에서 탈피하여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대한의사협회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의료제도를 제안하고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전문가단체로서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함으로써 무리한 정책이 일방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셋째, 의사들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2013년 새해는 위 세 가지 변화를 통해 앞으로 있을 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석을 쌓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패배의식, 피해의식을 완전히 버리는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나쁜 관습들을 먼저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제도를 제대로 세우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관철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2년은 잘못된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원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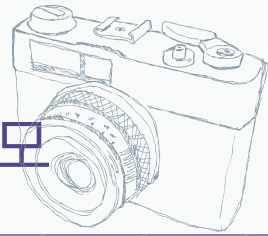
2013년은 의사들의 힘을 모아 앞으로 전진을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의사회원님 한 분 한 분께, 그리고 숭고한 보건의료직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의사협회장 노 환 규

사진으로 다시보는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 이모저모



- 좌부터 정능수 경북의사회장의 환영사, 김주형 전북의사회장의 답사, 노환규 의협회장의 축사
-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 최양식 경주시장, 이주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의 축사



1. 김병주, 신은식 원로 회원의 건배사
2. 양도의사회 화합의 시간 및 함께한 의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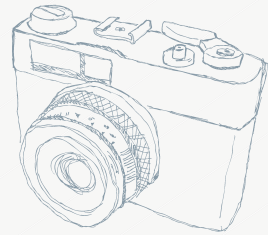


3. 경주시내 유적지 관광에 나선 회원들
4. 김광만 경북의장, 방인석 전북의장의 폐회인사
5. 전북·경북의사회장의 기념품 전달
6. 친선행사를 마치며 다함께 기념촬영



## 지역 의사회와 연계한 연말 복지시설 방문

연말연시를 맞아 본회와 시군의사회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희망 나눔을 실천하고 위문공연과 더불어 각종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 포항시의사회

2012. 12. 26  
포항모자원



### 경주시의사회

2012. 12. 11 예티센터  
2012. 12. 14 대 자 원



다함께 기부  
희망  
초심사



# Photo News

## 안동시의사회

2012. 12. 22 안나의집  
프란치스코 청소년의집



## 경산시의사회

햇살가득한집, 사론의집



## 상주시의사회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전개



사진 출처 :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 의협회장)는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고 지난 11월 24일(토) 제1차 토요 휴무 투쟁의 성공을 바탕으로 12월 1일(토) 제2차 토요 휴무 투쟁을 전개하였다. 의협 비대위의 투쟁에 맞추어 전국 시도 의사회서는 반모임을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의 목적과 당위성을 전 회원들과 공유한다는 지침을 전달하는 등 회원들의 동참 열기를 끌어올렸다.

주5일 40시간 근무투쟁 지침에 따라 첫째 주 전국 의료기관 토요휴무 참여율이 51%로 집계되었으며, 본회가 전국의 사회 중 87%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또한 12월 1일(토) 제2단계 토요휴무 투쟁에는 전국 의료기관이 60.28%, 본회는 74%로 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정부 투쟁과 관련하여 전 회원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대정부투쟁 참여 협조 공문 발송과 기자회견문 및 성명서를 발표(대정부 7개 요구사항 수용촉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또한 장기적 투쟁 전개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명실공히 의협산하 각 지역지부, 직역, 특별분회를 아우르는 투쟁체로 거듭나기 위해 규정개선 등 최선을 다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 재개편하고 실무팀 구성을 조직, 홍보 등 파트로 나누어 효율성을 높이며, 시군 구의사회의 협조를 받고 필요하면 직접 조사하여 기존 회원연락처를 최신의 자료로 업그레이드 하며 각지역·직역별 최 일선 대표자(반장, 의국장 등)까지 비상연락망 구축, 지난 투쟁관련 회원 참여자료 등을 집계하여 백서 발간 등의 자료로 보전하고 향후 투쟁 참여집계는 전수조사 실시, 의협 콘텐츠개발TF팀과의 협조하에 대회원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한 피해내용을 주제로 대국민홍보전을 강화, 각 지역 및 직역의사회 총회 등에 순회 방문홍보를 실시, 향후 닥쳐올 투쟁에 대비하여 지역·직역별 조직정비에 최선을 다한다고 결의하였다.

지난 2012년 12월 2일(일) 개최된 의협 임시대의원회 총회에서는 비대위가 추진하고 있는 대정부 투쟁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며, 전폭적인지지와 함께 투쟁에 동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고 지난 11월 24일(토) 제1차 토요 휴무 투쟁의 성공을 바탕으로 12월 1일(토) 제2차 투쟁을 전개하였다.

참할 것을 결의문 채택하였다. 12월 4일(화) 전국 의사대표자 연석회의에서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는 목표가 이뤄질 때까지 장기간의 투쟁을 위해 동력 축적과 내부결속을 다지고 지혜로운 판단도 중요하므로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집단행동 자제, 일시적 협상모드로 변경하고 의협이 지향하는 투쟁의 목적이 단기적 성과를 통해 달성될 수 없는 것인 만큼, 근본적인 의료환경의 개선을 위한 대정부 투쟁의 밑그림은 변하지 않으며 전면 휴폐업은 잠정 유보하고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로 하였다.

16개 시도사회장들 또한 지난 12월 8일 협의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 잠정 유보 결정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환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

기로 결정했으며, 의협회장은 앞으로의 성과는 상황과 시기를 봐서 회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시도 의사회장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지난 2012년 12월 4일 노환규 의협회장과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면담을 가졌으며, 12월 5일부터 △수가결정구조 개선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의정특별협의체 구성 △성분명처방 추진 중단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도 개선 △전공의 법정근무시간 제도화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 또는 엄정한 평가기준 마련, 전공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 7대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노환규 의협회장 단식투쟁장 방문 격려



지난 2012년 11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의협회관 7층에서 단식투쟁을 벌였던 노환규 의협회장 단식농성장을 본회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황인방 대전회장, 김주형 전북회장, 박양동 경남회장이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의 뜻을 보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는 의료계가 깨어나, 의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단식투쟁으로 회원들에게 호소하였다.

#### ◇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후원신청 및 후원금 납부방법

- 자동이체 (1구좌 10,000원, 10구좌 이내), 일시납 등
- 입금계좌 : 농협 301-0112-2492-11 / 대구은행 504-10-129035-7 경상북도의사회

#### ◇ 의료봉사단원 모집

-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활동에 관심있는 회원 ☎ 053-941-7785



## 제27회 전북·경북 친선행사서 화합과 우의 다져



본회(회장 정능수)와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주형)는 지난 2012년 10월 27일(토)부터 28일(일)까지 양일간 경주 블루윈리조트에서 제27회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양도사회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이날 친선행사는 본회에서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 신은식·최종두·이원기·정만진·이석균 고문, 임원 및 시군의사회장등 50여명이, 전라북도는 김주형 회장과 방인석 대의원회 의장, 김병주·장명규·천희두·김학경 명예회장 등 40여명과 노환규 의협회장,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 경상북도 이주석 행정부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등 양도사회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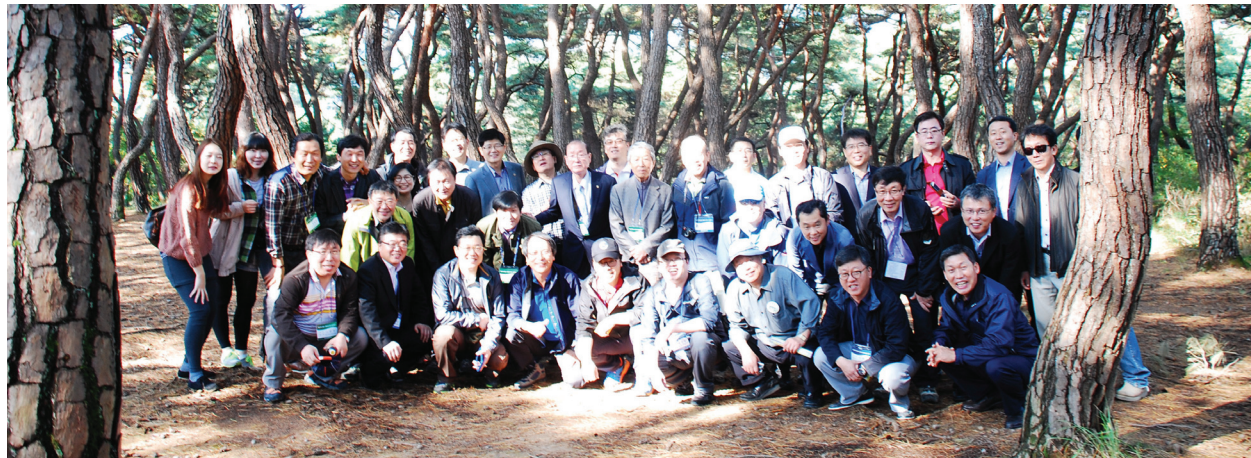
정능수 경북의사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천년고도 경주에서 친선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새 집행부를 구성한 후 첫 만남이어서 더욱 뜻깊은 행사이며,

이번 만남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더욱 공고히 하는 나 이태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하였다.

또한 김주형 전북의사회장은 답사를 통해 “가을이 오면 이 행사를 기다리게 되고 달력을 넘겨보곤 한다. 27년전 두 지역의 교류를 시작하신 선배님들의 뜻을 받들어 후배 된 우리들이 보다 긴밀히 협력하여 발전의 방법들을 모색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계의 모든 근심걱정을 내려 놓고 전북과 경북이 한마음이 되어 마음껏 즐기자.”고 하였다. 이어 의협 노환규 회장과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 이주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최양식 경주시장은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천년고도 경주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는 축사가 있었다.

이어 만찬과 더불어 퓨전음악과 트럼펫 5중주 공연으로 분위기를 한층 높였으며, 2부 친선행사는 보문단지에서

금년도 친선행사는 의료계의 단합과 회원 상호간의 화합의 장으로 열렸으며, 내년에 전북지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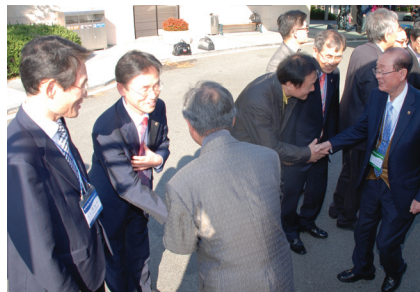


양 지역의사회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튿날에는 경주의 배동에 있고 남산의 서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삼릉숲'과 목아래부분만 보존된 '석조여래좌상', 여섯 개의 불상이 그림을 그리듯 새겨져 있는 '선각 육존불', '배리삼존석불 입상' 등 천년고도의 유적지를 둘러보는 코스를 오르며, 오색빛깔로 물든 가을의 단풍을 감상하는 관광으로 이루어졌으며, 친선골프대회는 블루원보문CC에서 개최되는 등 알차게 꾸며졌다.

금년도 친선행사는 본회 초청으로 의료계의 단합과 회원 상호간의 화합의 장으로 열렸으며, 기념품 전달과 환송사를 끝으로 2012년도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전북지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는 88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1987년 당시 김병주 전북회장과 오삼달 경북회장이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고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선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까지 상호 격년제 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 2012년도 경상북도의사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 학술 발표 연제

- 노년 남성비뇨기과 질환들과 최근에 나온 약제들
  - 박재신 대구가톨릭의대 비뇨기과 교수
- 외래에서 폐기능 검사기기의 활용(COPD와 천식을 중심으로)
  - 정진홍 영남의대 호흡기내과 교수
- 외래에서 흔히 보는 파킨슨씨병 환자 치료약제들
  - 이현아 계명대의대 신경과 교수
- 절세, 재테크의 비법
  - 홍진경 KDB금융그룹 지점장
- 혹시 우리집 아이가 ADHD?
  - 정운선 경북대의전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퇴행성 척추질환과 수술요법
  - 김인수 계명대의대 신경외과 교수
- 서해부 탈장과 복강경 수술
  - 이남혁 영남의대 외과 교수



박재신 교수



정진홍 교수



이현아 교수



정운선 교수



김인수 교수



이남혁 교수

본회는 지난 11월 4일(일) 오후 2시부터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10층 대강당에서 회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추계종합학술대회는 최영환 학술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최신 의학지견의 활발한 교류와 회원보수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개원회원들의 임상진료에 도움이 되는 학술연제를 선정하여 최신의학 지식과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다양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도록 하였다.

본회 정능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을 단풍이 절정임에도 불구하고 야외로 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진료현장에서 유익한 정보제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주요회무보고를 통해 2013년도 수가 협상이 보류된데 대해 앞으로의 의협의 방침을 설명하고 “11월 7일 예정된 전국 의사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대정부 투쟁방향을 논의할 예정임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올바른 의견이 전달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였다.

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은 본회 김재왕 부회장이 좌장으로 ‘외래에서 흔히 보는 질환들’이라는 주제로 총 3편의 학술연제와 ‘절세, 재테크의 비법’ 설명회로 강의를 진행되었다. 두 번째 세션은 본회 장유석 부회장이 좌장으로 3편의 학술연제로 총 7편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참석한 회원에게는 연수평점 6점이 주어지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 2013년도 의료계 신년교례회 참석



지난 1월 3일 서울 63시티 컨벤션센터에서 '2013년도 의료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의료계 신년교례회에는 노환규 의협회장을 비롯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본회 정능수 회장, 변영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 김동익 대한의학회장, 임수흠 서울특별시사회회장, 정영기 대한병원의사회장 등 의료계 지도자들과 박인숙·류지영·길정우·문정림·신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용익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의료계의 노고를 치하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2012년도 의사회비 신용카드 결제 안내**

www.igbma.or.kr 로그인 후 화면우측 배너창 클릭 회비결제

### 본회 고문단 간담회서 회무자문



본회에서는 최근 의료현안 설명과 더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2012년 11월 13일(화) 오후 7시, 포항 우미향에서 고문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능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고문단 간담회에 참석 해주신 고문님과 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제42대 집행부는 열정과 좋은 팀워크를 유지하며 회무에 전념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고문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고 하였다. 또한 김광만 의장은 "최근 의료계는 많은 어려움

### 2013년 제야의 경북대중 타종식 참석



올해로 17회째인 '제야의 경북대중 타종 및 희망! 2013 영덕해맞이 축제'가 2만여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12월 31일과 1월1일 이틀에 걸쳐 영덕군 강구삼사해상공원에서 열렸다.

'희망의 빛! 소원의 달!'이란 주제로 열린 영덕해맞이축제는 31일 식전행사인 풍물패 길놀이공연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불거리로 축제참가자들을 즐겁게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각 기관·사회 단체장들과 본회 정능수 회장은 경북대중 타종에 이어 '희망 2013' 퍼포먼스로 열린 특수조명을 이용한 불빛쇼와 휘황찬란한 LED 쇼에 환호와 탄성을 쏟아냈다.

특히 자정축원행사인 영남대 이현 교수·경북대 유소영 교수의 새해찬가와 한해의 액을 떨치고 새해소망을 담은 달집태우기는 참가자의 감동을 자아냈다.

(사진출처 : 영남일보)

에 처해 있으며,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고문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하였다.

이어 김우석 정보이사로부터 제42대 집행부의 그간 주요사업과 회무에 대해 유인물과 슬라이드를 통해 상세히 보고하였다. 특히 결혼 이주여성 친정마을 방문 의료봉사활동 등 해외 의료봉사활동 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의협 노환규 회장의 단식투쟁에 대한 배경 설명과 더불어 본회에서 의협 투쟁 로드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향후 의견이 모아지면 그 결과에 따라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이날 고문단 간담회는 본회 이병채·신은식·이원기·변영우 고문과 정능수 회장,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 황석순 부의장, 한형원 부회장, 서영진 감사, 신명준 포항회장, 이우석 의무이사, 김우석 정보이사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 시도사회장과 시도병원회장, '폴뿌리 의료협의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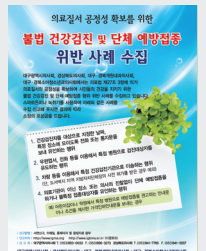


전국 시·도병원회장과 시·도 의사회장이 '폴뿌리 의료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현재 주어진 현안뿐만 아니라 이해와 설득으로 국민 편에 다가서는 한편 장기적으로 합리적 국가 의료체계 구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가기로 했다.

지난 2012년 12월 9일(일) 12시 서울 마포구 소재 진사덕에서 본회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임수흠 서울시의

사회장, 박상근 서울시병원회장 등 15명의 시·도 의사회장과 시·도병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이를 뒷받침할 의료시스템과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도캐비닛(Shadow Cabinet) 역할을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병협과 의협 공동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자는 제안에서부터 모아진 의견을 각자 병협과 의협에 건의하는 형태로 운영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는 등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과 병협이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에서 역할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폴뿌리의료협의체는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 개원가와 병원 각각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건강과 의료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국가의료체계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사진출처 : 병원신문)

###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신고센터 운영회의 개최



지난 2012년 11월 7일(수) 오후 7시 30분 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신고센터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신고사례 심의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박성민 위원장은 인사에서 "회원의 권익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불법검진신고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토의사항으로 신고사례에 대한 심의와,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 예방접종 신고센터 운영규정 검토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기타 안건으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 의료기관에 배부도록 했다.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신고센터는 매일신문, 영남일보(8월 24일자 2면) 광고를 시작으로 의사회보, 홈페이지 팝업창 및 배너설치를 운영하여 사례 수집을 하고 있으며,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능수 회장, 심사평가원대구지원 특강



본회 정능수 회장은 지난 2012년 10월 30일(화) 오후 4시 30분 심사평가원대구지원 직원들을 대상

으로 '의료계가 보는 심사평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 정능수 회장은 전산심사의 확립화, 급여기준 및 전산심사 개선, 이의신청 등 절차 간소화, 적정성평가 개선, 포괄수가제도 적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단순한 착오 청구를 부당·허위 청구로 매도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지 말고 의료의 개별성을 살릴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 노력해 줄 것과 의료기관과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의료기관 진료차트, X-Ray 필름 무료파쇄**

- 보안문서 안전하게 현장처리 -  
대구드림텍 ☎ 053-583-1252

### 경북북부 제3교도소 방문



회수립을 위해 경북북부제3교도소를 방문하였다.

본회에서는 지난 2012년 10월 24일(수) 오후 4시 30분부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무료진료 계획수립을 위해 경북북부제3교도소를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에는 본회 정능수 회장과 김재왕 부회장, 문상웅 기획이사과 김석곤 안동회장, 이한양 안동의료원장, 김용주 안동병원장과 정만진 북부제3교도소부속의원장, 박재영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교정홍보 동영상 시청, 경북북부 제1교도소장 및 제3교도소장의 면담 등의 순서로 이루어졌으며, 본회에서는 추후 교정시설에 대한 무료진료계획을 수립하고 교정시설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키로 했다.

### 건보공단 대구지역본부와 간담회 개최



22일(목) 오후 7시, 송죽매식당에서 개최되었다.

본회 정능수 회장은 참석자 소개와 더불어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의사회와 공단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협화음이 많았지만 양단체가 협력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서로 협조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하였으며, 이어 박경순 대구지역본부장은 참석자 소개와 더불어 인사말을 통해 “오늘 만남을 통해 좋은 파트너로서 회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자.”고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체계개선단 홍진호 팀장으로부터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에 대한 추진배경과 형평에 맞고 공정하고 수용성 높은 부과체계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간 상견례 및 의료현안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지난 11월

### 본회 및 시군 사무직원 회의 개최



한 2012년도 의사회비 납부 독려를 요청하였다. 이날 회원의 사면허신고와 관련하여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모든 회원이 내년 4월 28일까지 일괄신고가 될 수 있도록 사무직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2012년도 의사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공문 및 서한문 발송, 카드징수 등을 동원하여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군의사회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정능수 회장도 2013년도 회원명부 발간과 관련하여 누락되는 회원이 없도록 철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연수교육 평점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12년부터 새로이 개정된 연수교육 이수방법을 안내하는 등 사무직원들이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회무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2012년 11월 20일(화) 오후 4시, 본회 사무처에서 사무직원 회의를 개최하고 면허신고제를 비롯

### -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



본회 회무 및 지역의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요소식을 발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경북의사회보'를 기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요청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소 재 : 제한없음(시, 수필, 의학 및 건강칼럼 등)
- 원고매수 : A4용지 2장 내외(글자크기 12포인트 기준)
- 보내실 곳 : 홈페이지(www.igbma.or.kr)의 회원마당 → 회보투고란에 게재(상시제출가능)
- 기타사항 :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의사회보 편집방침에 따라 취지에 맞도록 약간의 원고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경섭 교수,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 초대 이사장 추대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비뇨기과 이경섭 교수가 지난 2012년 10월 25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린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임기 2년의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 초대 이사장에 추대됐다.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는 비뇨기초음파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비뇨기과 전문의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창립됐다. 이 교수는 대한전립선학회 회장과 대한비뇨기과학회 의료정책특별위원장 및 평의원, 대한비뇨기종양학회 감사, 대한남성과학회 이사 및 대한암연구재단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이경섭 교수 英, '올해의 의학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비뇨기과 이경섭 교수가 영국 인명사전인 IBC의 2012년 올해의 의학자 (Top 100 Health Professional)로 선정됐다. 전립선질환 및 비뇨기생식기 종양 등이 전문분야인 이 교수는 질환과 관련된 논문을 외국 유명 학회지에 실은 바 있다.

### 김병욱 병원장, 10대 포항성모병원 의무원장 취임



포항성모병원 10대 신임 김병욱 의무원장이 취임했다. 김병욱 의무원장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MGH 외과 연수를 거쳐 포항성모병원의 외과 전문의로서 1990년부터 22년째 재직하고 있으며 외과 주임과장, 수련부장과 진료부장을 역임했다. 김병욱 의무원장은 취임사에서 “지역민들의 소중한 동행자로서 고객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가족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최신 의료장비나 혁신 기술보다 고객을 감동시키는, 또 고객이 인정하는 가치창조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비전인 '소중한 동행, 신뢰받는 참 좋은 포항성모병원을 실현하도록 저부터 열정을 다하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직원 모두의 변화와 협조를 강조했다.

### 김효윤 병원장, 제9대 안동병원장 취임



안동병원 신임 김효윤 병원장은 지난 1월 2일(수) 제9대 병원장으로 취임했다. 김효윤 병원장은 경희대를 졸업하고 원자력병원수련, 경희대 외래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1998년 안동병원에 부임해 응급과장, 응급의료센터장으로 재직해 왔다. 김효윤 신임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환자들이 신뢰하고, 진료받기 편한 병원, 1천2백여명 임직원이 희망을 갖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유석 회원, 대경외과개원의협의회장 선출

대구경북외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012년 11월 22일(목)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201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경산



장유석 회원(경산, 장유석외과의원)을 선출했다. 장 신임 회장은 경북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에 외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2007년 경산시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장 회장은 현재 경상북도의회 부회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 김종영 회원, 경산시의사회장 선출



경산시의사회는 지난 2012년 12월 11일(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김종영 회원을 선출하였다. 김 신임회장은 영남의대를 졸업하였으며, 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을 개원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경산시의사회 부회장을 거쳐 이번에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경상북도의회 공보이사와 대구·경북소아청소년과의사회 부회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김원기 회원, 상주시의사회장 선출



상주시의사회는 지난 2012년 12월 13일(목)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김원기 회원을 선출하였다. 김원기 신임회장은 계명대를 졸업하였으며, 상주적십자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상주시 무양동 소재 김원기신경외과의원을 개원하여 지역민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 이원기 회원, 영주시의사회장 선출



영주시의사회 신임회장에 이원기 회원을 선출하였다. 이 신임회장은 경북대를 졸업하였으며, 영주시 영주동 소재 최소아청소년과의원을 개원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임기는 1월 1일부터 1년이다.

### 한재호 회원, 질병감시 참여 우수인 선정 표창



한재호 회원(구미, 한재호내과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7일(금), 서울 롯데호텔에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 질병감시 참여 우수인(기관)상' 시상식에서 국가 감염병 감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질병감시 참여 우수인(기관)상'은 국가 법정감염병 전수감시 51종 감염병 발생시 지체없이 신고하고, 아울러 표본감시(인플루엔자 및 의료관련감염병, 수족구병 표본감시 등 24종)와 자발적 감시(소아과·학교·안과 감염병 14종)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에 기여한 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김미경 경주시보건소장, 대통령상 수상



경주시보건소 김미경 소장이 지난 2012년 11월 22일(목)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컨퍼런스'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김 소장은 주민건강지원센터와 노인전문간호센터, 시립노인병원 등 보건 전문기관을 유치해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했다. IT 산업을 접목해 감염병 감시 체계를 세우고 친환경 방역 사업, 신종 감염병 조기 차단, 디지털 결핵 복약 감시 시범 사업 도입 등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을 접목해 감염병 감시 체계를 세우고 친환경 방역 사업, 신종 감염병 조기 차단, 디지털 결핵 복약 감시 시범 사업 도입 등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재원 회원, 포항MBC 삼일문화대상 특별상 수상



이재원 회원(포항, 화인비노기과의원)이 지난 2012년 12월 4일(화) 오후 7시30분 경북학생문화관에서 개최한 '제17회 포항MBC·삼일문화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포항MBC·삼일문화대상'은 향토기업인 삼일가족(회장 홍상복)과 포항MBC(사장 강성주)가

포항·경주·영덕·울진 지역 각 분야의 숨은 일꾼을 발굴, 격려하고 아름다운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공동 주최하는 상이다.

개원을 축하합니다 (2012년 9월 ~ 11월)

포항시

이 정 래 \_ 양덕이비인후과의원  
(791-270) 포항시 북구 양덕동 1381 하나은행2층  
T. (054)255-1000 / F.255-3663

김 정 수 \_ 죽도경대연합의원  
(791-842)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4길 6  
T. (054)254-2022 / F.254-2023

이 동 필 \_ 제니스의원  
(791-852)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49번길 26  
T. (054)249-8899 / F.249-8898

이 재 범 \_ 굿모닝메디칼의원  
(791-805) 포항시 북구 득량동 150-2  
T. (054)278-0550 / F.278-0560



경주시

김 진 용 \_ 김진용정신건강의학과의원  
(780-020) 경주시 동부동 132-9 3층  
T. (054)624-0700 / F.624-0701

안동시

허 낙 구 \_ 길안온누리의원  
(760-845)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542-3  
T. (054)823-9922 / F.823-9921

구미시

신 영 국 \_ 신내과의원  
(730-804)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342-4  
T. (054)482-4600 / F.482-4601

경산시

이 동 희 \_ 아이편한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712-190) 경산시 사동 40 2층  
T. (053)801-2500 / F.801-2566

최 승 욱 \_ 동산연합내과의원  
(712-735) 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29  
T. (053)851-6903 / F.851-6904

오 현 희 \_ 참조은소아청소년과의원  
(712-110) 경산시 대학로 30  
T. (053)523-9400 / F.523-9410

성주군

한 경 환 \_ 가천경대의원  
(719-883)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910-4  
T. (054)933-9770 / F.933-9775

의성군

조 대 원 \_ 의성튼튼연합정형외과의원  
(769-805)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858-51  
T. (054)834-7009 / F.834-7710

청도군

한 성 기 \_ 청도동산병원  
(714-863)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19-1  
T. (054)371-5311 / F.371-5578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동하 회원(포항송라요양병원) 별세



포항지역 의료계 거목 최동하 회원(포항송라요양병원장)이 지난 2012년 11월 29일(목)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최동하 회원은 경북 의대를 졸업하였으며, 1975년 최동하외과의원을 개원한 뒤 20여년 동안 시민건강을 돌보았다. 고인은 포항시의사회장과 경상북도

의사회 학술이사직을 역임해 오면서 지역의료계를 위해 헌신해 왔다. 사회활동으로 직장새마을운동 포항시협의회 운영위원, 대한 적십자사 조직위원·전국대의원·경북지사 상임위원 뿐만 아니

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5-H지구 포항라이온스클럽 평생회원, 국제라이온스협회 355-H지구 영일만라이온스클럽 가이딩 라이온 등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용삼 회원(상주, 후생의원) 별세



이용삼 회원이 지난 2012년 7월 향년 77세로 별세했다. 이용삼 회원은 상주시 화서면 신봉리에 후생의원을 개원하여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보았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4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공모



본회는 의학에 대한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학술상 수상자와 지역사회와 지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에 대한 봉사상 수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시상개요

- (1) 상 명 :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각 1명)
(2) 시상내용 : 본상 상패 및 부상(각 금 1냥)
(3) 후 원 : (주)동원약품
(4) 시상시기 : 2013년 3월 23일, 본회 정기대의원총회

응모자격

- (1) 학 술 상
- 본회 회원으로서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자
-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동일한 논문으로 타 학술상을 수상한 논문과 최근 3년간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수상자는 제외)
- 1저자 혹은 교신저자

봉사상(회원 및 단체)

- 본회 회원으로서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자 또는 의사단체
-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진료, 교육, 문화, 육영, 체육, 예술, 지역사회 개발, 사회복지사업 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펴 본인 또는 지역주민 또는 관련기관, 단체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
- 본인 신청 또는 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제출서류

- (1) 학 술 상
- 신청서 및 이력서 각 1부
- 논문목록표 1부(논문은 우선 순위로 기재)
- 논문개요 및 학술적인 의의 및 의학발전의 공헌도에 대한 요약 1부
- 논문의 별책 각 1권

봉사상(회원 및 단체)

- 신청(추천서 및 이력서 각 1부)
- 봉사개요 및 활동내역 1부
(각종사진 및 신문기사 등 활동사항)

제출사항

- (1) 제출마감 : 2013년 3월 5일(화)까지
(2) 제출처 :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82 (대현동) 경상북도의사회
(3)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제출 (제출서류 마감은 3월 5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기타사항

- (1)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며, 심사는 경상북도의사회장이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자에게는 본회에서 개별 안내합니다.
(3) 제출서류(신청서 등)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www.igbma.or.kr)의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문익는 본회(☎ 053-941-7785)로 문의 바랍니다.
(5) 응모자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본회 학술상 및 봉사상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3. 1.
경상북도의사회

# 제12차 의원급 의료배상공제 가입안내

## 가입개시 2012. 11. 1 ~ (수사가입 가능)

### 가입요령

- 은행계좌로 해당 공제료가 입금된 익일 0시부터 1년간 (단,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제로 입금내역이 일치해야 함)
- 가입대상 :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소속 개원의 및 봉직의(개인가입)
- ※ 병원급 의료기관 가입은 개별문의 바랍니다.

## 가입절차

실제 진료내역에 해당하는 진료계열(Code), 보상한도액, 면책금 선택 (특별약관이 필요한 경우 담보내용 확인 후 가입여부 선택)

가입신청서 기재 및 서명(납부할 공제료를 안내 받음)

가입신청서 송부(FAX 또는 우편)

지정된 은행계좌에 공제로 입금(가입회원명 및 면허번호 기재)

## 납입방법

- 일시납이 원칙이며, 총 공제료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2회분납(2%할증), 총 공제료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 4회분납(3%할증) 선택가능.

### 분납시 공제로 납입방법

- 2회분납 : 1회차(60%), 2회차(5개월후 40%)
- 4회분납 : 1회차(35%), 2회차(2개월후 25%), 3회차(5개월후 20%), 4회차(8개월후 20%)

## 공제로 납부

- 예금주 : 사)대한의사협회(공제회)
-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3-01-0220-198
- 은행입금시 반드시 가입회원명(면허번호) 기재  
※ 이미 가입중인 회원은 안내문을 보시고 만기(갱신)일에 참조하여 가입
- 가입문의처  
• 대구·경북 주재사무소 Tel 1899-0059 (ARS 3)  
• 공제회 본부 Tel 1899-0059 (ARS 3)

## 의료배상공제란?

### 공제회가 사업을 총괄운영

- 공제회가 공제계약 및 사건처리/심사/보상의 주체
- 안정적 위험분산가능 확보를 위해 손해보험사(삼성화재)에 재공제 가입

### 의료배상공제의 특징

- 진료계열별 6개 Group으로 가입체계를 분류
- 보상한도액의 현실화(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등)

### 의료사고분쟁의 현실적 해결책 제시

- 타손해보험사와 구별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건처리 및 합의지원 (서울본부 외 주요 지역별로 공제회 주재사무소 설치운영)
- 회원 권익보호, 합리적인 피해보상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현(민사 소송 대행 가능)

## 의료배상공제 상품내용

### 보통약관(기본담보)

- 의료과실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 (민사소송 대행 가능)

### 특별약관(선택담보)

- 경호비용 :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점거, 난동 및 부당한 보상강요에 대응하여 사건 처리 수습,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경호비용을 보상(경호원 출동 서비스)
-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 수진자의 사망(뇌사 포함)시 수진자 측이 의료분쟁을 제기한 경우 관습적으로 지급하는 조의금이나 위로금 또는 형사합의금을 보상
- 벌금 : 의료사고로 인하여 사법기관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담하는 벌금을 보상
- 형사방어비용 : 의료사고로 인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형사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을 보상
- 초빙의 및 마취의 : 기명 피공제자의 초빙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명피공제자의 수진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기명피공제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의사(초빙의/마취의)의 의료행위 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담보
- 개인정보누출 배상책임 및 위기관리실행비용 담보 : 의료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누출(사고)로 기인하여, 기명 피공제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및 누출(사고) 최소화를 위해 부담한 위기관리실행비용을 보상

# 분회 및 병원소식

## 포항시의사회

### 박인숙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



포항시의사회(회장 신명준)는 지난 2012년 11월 13일(화) 오후 8시 위드외인에서 박인숙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신명준 회장과 이우석·문기혁·이정미 부회장, 이재원 기획이사, 이광원 재무이사, 이종수 감사와 경상북도의회 정능수 회장, 한형원 부회장,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 변영우 의협대의원회 의장, 이원기 고문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 제3회 포항보건단체 독도사랑 음악회



포항시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5개 보건단체가 함께하는 '제3회 독도사랑음악회'가 지난 2012년 11월 10일(토) 오후 6시 30분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포항지역 의약인 5개 단체 합동공연에는 이병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포항시 기관단체장 등 많은 내빈과 500여명의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열려 5개 보건단체의 숨은 장기들을 선보였다. 이날

공연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약인으로, 음악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고, 의약인들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멋진 행사로 선보였다.

## 해외의료봉사활동 MOU



지난 2012년 12월 18일(수) 포항시의사회, 선린병원, 포항시와 공동으로 해외 의료봉사활동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아프리카 등 자개발국가들이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 보급과 함께 해외봉사 활동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신명준 회장은 "올해 마다가스카르에 봉사활동을 직접 다녀왔다. 현지에 가보면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많은 질병에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슴이 아팠다" 며 "앞으로 포항시와 선린병원 등과 적극 협력해 체계적인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 '2012년도 함께하는 송년의 밤' 개최

지난 2012년 12월 26일(수) 오후 7시 30분, 포항모자원 다목적실에서 '2012년도 포항모자원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모자가정세대, 후원자 등 100여명을 초청해 저녁 만찬과 더불어 내빈소개 및 인사,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함께하는 작은음악회에서는 심평원대구지원 김우정님의 공연과 더불어 아동 및 어머니 공연, 포항시의사회 중창단의 노래 등으로 꾸며져

포항모자원 가족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송년의 밤 행사에는 신명준 포항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정능수 경북의사회장,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 황의동 심평원대구지원장, 황인식 영일만 동지회 고문 등 많은 후원자와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포항시의사회, 경상북도의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이 저녁 만찬과 포항모자원 자녀들에게 깜짝 선물을 전달해 훈훈한 송년의 밤 행사가 개최됐다.

## 2013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의료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신년 대화의 자리인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 3일(목) 오후 6시 30분, 웨딩아 이린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신명준 포항회장장과 정능수 경북회장, 변영우 의협대의원회 의장, 신은식·이원기 고문, 김광만 분회 대의원회 의장 등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명준 회장의 신년사와 내빈소개가 있는 후, 변영우 의협회장장과 정능수 경북회장의 격려사, 박승호 시장과 최철우 의장의 내빈축사가 있었으며, 새해 덕담과 건배사와 더불어 새로 전입한 봉직회원의 소개가 있는 후 회원들간의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안동시의사회

### 연말을 맞아 복지시설 방문

안동시의사회(회장 김석곤)는 지난 2012년

12월 22일(토), 안나의 집과 프란치스코 청소년의 집 등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보낼수 있도록 위로하였다.

### 경주시의회

#### 2012년도 송년의 밤 행사 개최



경주시의회(회장 조성범)는 지난 2012년 12월 27일(목) 오후 7시, 경주 힐튼호텔 체리룸에서 회원 및 가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회원 및 가족 장기자랑을 비롯한 회원 친선의 시간을 가졌다.

#### 경주시의회 성명서 발표

경주시의회는 의협회장이 단식 투쟁을 하는 비상 상황 속에서도 전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우리 의료계의 현실을 바라보며 비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히는 성명서를 지난 2012년 11월 15일 발표하였다.

왜곡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향후 의협의 투쟁 일정에 적극 동참하며, 시도의 사회·의학회·개원의협의회와 병원협회는 의협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정부 투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하였다. 또한 10만 의사회원들은 각자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의협의 지침이 정해지면 한 마음으로 단결하여 행동할 것을 간절히 호소하였다.

#### 에티키퍼 및 대자원 복지시설 방문

매년 연말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후원 및 물품 전달을 이어가고 있다.

첫번째로 지난 12월 11일(화) 오후 8시 경주시의회와 경주시기독교사회는 강동면에 위치한 에티키퍼(중증장애인 보호시설)를 찾아 에티키퍼 정희호 목사의 시설 동정 보고를 들은 후, 후원금을 전달하고 이용자들의 동태를 둘러보았다.

또한 두번째로 12월 14일(금) 오후 8시 천북면에 위치한 대자원(아동보호시설)을 찾아 시설 동정보고를 들은 후, 준비한 물품(생필품 및 과일)을 전달하였다. 이번 복지시설 방문에 정능수 경북회장이 직접 방문하여 연말연시 불우시설을 찾아 위문하였으며, 손영규 회원(소망이비인후과의원)이 산타할아버지로 분장하여 마술과 선물나눔으로 어린이들의 환영을 받았다.

### 영천시의회

#### 회원 친선골프대회 개최



영천시의회(회장 이종형)는 지난 2012년 11월 25일(일) 인터볼고C.C에서 정능수 경북회장을 비롯한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시의회 정기 골프 대회를 개최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였다.

### 상주시의회

#### 고구마 55박스 이웃돕기에 기탁

상주시의회(회장 이원두)는 지난 2012년 10월 19일(금) 의사회 회원들과 함께 정성으로 모은 고구마 55박스(10kg 기준)를 관내 홀로사는 어르신 등 지역의 소외계층에 써달라고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 기탁했다. 이원두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의사회에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 밝혔다.

### 경산시의사회

#### 2012년도 정기총회 개최



지난 2012년 12월 11일(화) 오후 7시 30분, 경

산컨벤션웨딩에서 201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입회장에 김중영 회원을 선출하고 신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날 정기총회는 박일영 회장을 비롯한 정능수 경북회장, 최경한 국회의원, 서용덕 경산시보건소장 등 내빈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더불어 2012년도 감사보고, 회무 및 일반회계 결산은 이의없이 받아들이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 회원 친목 가을 아우회 개최



경산시의사회(회장 박일영)는 지난 2012년 11월 11일(일) 영천 은해사 기기암에서 가을 아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아우회에서는 등산을 마치고 하산후 식당에서 뒤풀이 시간을 가졌으며, 가족 장기자랑을 비롯한 웃놀이로 친선을 도모하였다.

### 의성군의사회

#### 2012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회 개최



의성군의사회(회장 권순호)는 지난 2012년 12월 20일(목), 정능수 경북회장을 비롯한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정기총회를 겸한 송년회를 개최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더불어 한해를 되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 경상북도포항의료원

#### 공공보건료계획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포항의료원이 운영하고 있는 경북도립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병원장 변영우)이 제3기 공공보건료계획 2011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2년 11월 19일(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으며 전국공공병원 8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적정진료위원회운영, 수면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병사 수행지침 마련 시행, 의료사각지대 계층 대상 의료지원사업 및 감염병관리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종찬 가정의학과전문가가 '공공보건료사업계획 2011년 시행결과 공로자'로 이상표 공공보건팀장은 '2012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발전 공로자'로 각각 선발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 지역아동센터 환우 위안공연 개최

경상북도포항의료원과 포항시 지역아동센터가 지난 2012년 12월 20일(목), 포항의료원 대강당에서 '지역을 함께 밝히는 사랑의 빛'이라는 주제로 환우 위안공연을 개최했다.

공연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한 해 동안 배우고 익힌 작품전시와 특별프로그램을 무대에서 발표해 아동들의 자신감을 높였으며, 환우 및 지역민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연말연시 환우들과 지역민에게 정서적 위로와 만족감을 도모했다.

특히 행사를 위해 포항에 위치한 포항빛살, 하늘꿈, 늘푸른 마음 지역아동센터 등 3개 기관의 아동들이 모듬북, 꼭두각시, 댄스, 바이올린연주, 핸드벨 등의 여러 장르의 공연을 펼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포항의료원은 행사에 참여한 아동들을 위해 선물과 식사를 제공하였다.

### 포항성모병원

#### 지역 소외계층에 희망의 홀씨 전해

포항성모병원(병원장 손경옥)은 지난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일주일간 저소득층 및 지역소외계층 10가구를 찾아가 총 1,000만원 상당의 성금·물품을 전달했다. 이는 앞서 지난 10월에 실시한 '2012 소중환



동행, 사랑나눔 바자회'의 수익금의 일부를 직원 및 지역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의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총10가구를 선정하여 병원 직원들이 나누어 방문 및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쌀, 라면, 부식, 휴지, 이불, 겨울의류 등의 생필품과 LCD TV, 전기메트, 압력밥솥, 전기순간 온수기 등의 가전제품, 소득이 일정치 않아서 연체되었던 전기세, 난방비, 월세 등을 성금으로 지원하여 추운 겨울 훈훈한 마음이 되고 있다.

### 포항세명기독병원

#### 울릉도서 사랑의 나눔 의료봉사



포항세명기독병원(이사장 한동선)은 해마다 울릉도에 의료봉사단을 보내 지역민들에게 인술을 펼쳤다. 지난 2012년 11월 4일 포항세명기독병원 의료봉사단은 울릉군 북면 천부리 마을회관에서 한동선 이사장을 비롯해 조상희 신경과 전문의, 이문섭 외과 전문의 등 2명이 참가해 주민들을 위한 사랑나눔 의료봉사 활동을 했다.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경북응급의료정보센터 개소식



동국대학교경주병원(병원장 심재철)은 지난 2012년 11월 5일(월) 경상북도 윤정길 보건

복지국장,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미경 경주시보건소장, 심재철 동국대학교경주병원장, 최진식 행정처장, 응급의학과 최태해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응급의료정보센터 개소식을 열었다.응급의료정보센터는 2000년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응급의료체계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구급차를 운영하는 기관과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경북응급의료정보센터는 연구원, 보건 의료직, 센터장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급환자 발생시 119출동, 현장처치, 병원처치, 이송, 치료, 입퇴원까지 통합하여 one-stop 체제로 운영된다. 또한 365일 24시간 각 진료과 및 검사실과 긴밀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응급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지역센터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장에 최태해 교수가 위촉되어 응급의료계 발전에 앞장서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경상북도안동의료원

#### 공공보건료 최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의료원장 이한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국 공공병원 15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공공보건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의 공공보건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년 실시하고 있다.

안동의료원은 이번 평가에서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인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체계적 관리를 돕는 '만성질환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원격 영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민들

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안동병원**

**병원장 및 주요보직과장 임명**



안동병원(이사장 강보영)은 지난 1월 2일(수) 개최된 안동병원장 이·취임식에서 신임병원장을 비롯해 진료부 주요보직과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전임 집행부를 격려했다. 또한 병원장 선임과 함께 2013년 주요보직과장도 임명했다. 안동병원 진료부장에 이창영 과장(소화기 내과), 응상안동병원 진료부장에는 양상중 과장(정신건강의학과)이 각각 임명됐다. 수련부장에는 박희천 과장(신경과)을 임명했으며, 진료협력센터장에는 방종효 과장(신장내과)이 유임됐다. 암센터장은 신세원 과장(방사선종양학과), 응급의료센터장에 김병철 과장(응급의학과)이 맡게 됐으며 올해 신설된 건강증진센터장과 QA부장에는 권세홍 과장(영상의학과), 구태본 과장(산부인과)이 각각 임명됐다.

**급성기 뇌졸중 치료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 189개 병원을 대상으로 급성기 뇌졸중 임상능력을 평가한 결과 경북지역 12개 의료기관 중 1등급을 받았다. 뇌졸중 평가는 뇌혈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뇌졸중 초기진단이나 조기 치료, 2차 예방치료 등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10여개 구조 및 과정지표를 대상으로 했다. 심평원의 평가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 개선을 유도하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응급의료선진화 심포지엄**

심장이 멎은 환자를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낸 119 대원과 병원 의료진의 사례를 발표하고 더 많은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프로젝트' 응급의료선진화 심



포지엄이 12월 11일 안동병원 컨벤션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응급환자의 병원전단계 처치와 병원단계 응급의료 선진화를 주제로 열렸으며, 경북소방본부, 경북 관내 16개 소방서 구급대원, 119생명지킴이 봉사단, 의료진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경상북도와 경북권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안동병원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과 경북도민의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했다.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퇴원손상 심층조사' 우수병원 선정**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병원장 오천환)은 지난 2012년 11월 29일(목)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퇴원손상 심층조사' 보고회에서 우수병원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및 손상 예방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해 실시되는 국가사업으로 전국의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170곳이 참여하고 있다. 동 병원 의료정보팀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8년간 퇴원환자분석 DB를 활용해 질병 및 치료정보·심층손상정보 등과 같은 조사 항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질병관리 본부에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보건 및 보건지표 생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햇살아이지원센터' 학대 피해 아동관련 세미나**

순천향구미햇살아이지원센터(대표 이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공곡스님)은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2012년 11월 12일(월)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향실교육관에서 '2012 햇살아이(아동학대) 세미나'를 가졌다. 의료인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학대가 의심되는 의료정보 및 학대 아동 발견을 위한 의료인 역할 교육으로 이뤄졌으며 의료인이 앞장서 아동학대 신고를 보다 활성화 할 것을 다짐했다. 실제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서는 올해 4월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9세 남자 아이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 아동심리 치료와 적절한 지원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순천향구미햇살아이지원센터는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학대아동 캠페인 및 사전진단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항생제 적정성평가 1등급받아**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유소아 급성중이염에 대한 항생제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유소아 급성중이염 평가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원/보건소 등) 7679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전체평균 88.7%로 높은 처방률을 보인 가운데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평균보다 낮은 62.4%의 처방률을 나타냈다.

**경산세명병원**

**경산대학교 산학협동협약 체결**



세명병원(이사장 최영욱)과 경산대학교(총장 박소경)는 지난 11월 22일(목) 경산대 호산관 회의실에서 산학협동 약정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세명병원은 학생들의 실습·견학 등을 지원하고 대학 측은 우수 인력을 제공키로 했다.

**영유아기 뇌 발달에 있어 철분의 중요성**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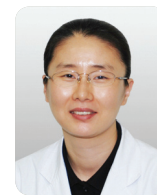
철 결핍은 지구상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영양결핍으로, 철 결핍 빈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중추 신경계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영유아기는 빠른 성장과 제한된 음식물 섭취로 인해 철 결핍에 빠질 위험이 크며, 중추 신경계의 빠른 성장기이기도 하여 철 결핍이 어느 연령보다도 중요한 임상적 의의를 가지는 시기이다.

철 결핍을 가지는 소아에서 관찰되는 행동 및 인지 장애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가 아직 부족하지만, 신경전달 물질의 대사 이상, 수초화 형성의 감소, 그리고 뇌 에너지 대사의 변화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후 첫 2년 동안은 급격한 뇌 성장과 함께 정신, 운동, 감정 발달에 중요한 시기로, 철 결핍으로 인한 빈혈은 치료될지라도 인지 기능 및 운동 기능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저자는 철분이 영유아기 뇌 발달에 중요한 영양요소를 소개하여, 이 시기의 철 결핍은 심각한 질병 상황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론]**

**1. 철의 대사기전**

음식물의 철분함유량 및 식품에 포함된 철분의 생체 이용률에 따라 흡수율이 다르지만, 신체에 필요한 철분 흡수는 소장 점막세포에 의해 조절된다. 철은 헴(heme) 상태의 철분과 비헴(non-heme) 상태에서 유래되는 철염(iron salt)으로, 전자가 좀 더 효율적으로 흡수된다. 헴 형태의 철분은 점막 세포를 통하여 직접 흡수된다. 반면 철염은 아스코르빈산과 십이지장 cytochrome B (DCYTB)에 의해 제 2가철로 전환되고, 장내 H<sup>+</sup>이온과 함께 DMT1을 통하여 흡수된다. 흡수된 철분의 혈액 방출은 Hcpidine이 조절하는데, ferroportin 1에 결합하여 혈액으로의 철 분비를 억제한다. 철 결핍 시에는 간에서 hepcidin 분비를 감소시켜 혈중 철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김애숙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 2. 철 결핍과 뇌 발달 관계에 대한 연구

수초 형성, 가지돌기 형성, 시냅스 형성, 신경 전달과 같은 중요한 뇌 발달 과정에 철이 함유된 효소와 핵 단백질이 필요하다. 철 결핍으로 인해 철을 함유하는 효소의 작용이 억제되어 세포외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증가한다. 행동 발달과 관계되는 도파민, 세로토닌 대사와 카테콜라민의 변화는 철 결핍과 관련되는 여러 행동 변화 및 신경증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 결핍은 뉴론 표면 단백질 Thy-1의 감소와 신경전달 물질을 변화시켜 기저핵과 다른 뇌 조직 간의 시냅스를 감소시킨다. 최근 유전자 분석을 통해 철 결핍의 어린 쥐 뇌 조직에서 세포골격 안정성과 시냅스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자의 변형을 발견하였는데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이 초기 철 결핍 이후 오랫동안 행동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피지교세포는 시각, 청각 등 감각 기능과 학습 및 행동을 담당하는 세포로 수초화를 위해 철분이 필요한데, 영유아기 철 결핍 빈혈로 인해 청력 및 시력과 관계되는 신경전달 속도가 떨어져 있고, 철 결핍 치료를 하고 나서 4년 후 추적관찰에서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영유아기 이후 철 결핍 환아를 추적 관찰한 결과, 2세 이전의 혈색소 수치와 4-5세 때의 IQ 및 운동 사회성과 관련이 있고, 이는 유년기 중반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2세 전에 철 결핍 빈혈을 치료한 경우는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2세가 지나서 치료하게 되면 인지 및 행동 장애는 어느 정도 호전을 보이지만, 학업 성취도의 저하는 적절한 철분을 충분히 공급하더라도 학동기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

## 3. 출생전후기 및 영유아기의 철 상태

임신 중 모체의 철분 상태와는 관계없이 태아는 75-80mg/kg의 철분을 가지고 출생하게 된다. 태아 말기에 모체로부터 받은 철분으로 생후 5-6개월까지 철 부족 없이 지낼 수 있지만, 이후에는 재태기간 중 저장된 철이 소모되어 철 강화 분유나 이유식으로 철 공급을 하지 않으면 철 부족이 초래된다. 사춘기의 제 2 급성장기는 체내 혈액량 및 근육 조직이 급작스럽게 팽창됨으로 철분 요구량도 급증하게 된다. 제2급성장기가 끝날 무렵에 여아는 월경이 시작되면서 평균 0.5mg/day 정도의 추가적 철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하루 철 필요량이 약 1.4mg/day로 증가하게 된다.

## 4. 철 결핍의 진단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검사 하나만으로는 철분의 모든 상태를 추정할 수 없고, 철 결핍 빈혈을 진단할 때 만성 질환에 의한 빈혈과 구분하여야 한다. 염증반응이 있으면 혈청 페리틴이 증가하게 되어 빈혈 환자에서 증가된 혈청 페리틴은 철 결핍 빈혈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 혈청 트랜스페린 수용체가 도움이 된다. 또한 경구용 철분제 3-6 mg/kg/day을 한 달간 복용하고 나서 혈색소 (>10 g/L)의 호전은 빈혈의 원인으로 철 결핍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철은 뇌 발달에 있어 신경전달, 에너지 대사 및 수초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출생부터 생후 24개월까지는 급격한 뇌 성장과 함께 정신, 운동, 감정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초기에 철 결핍을 진단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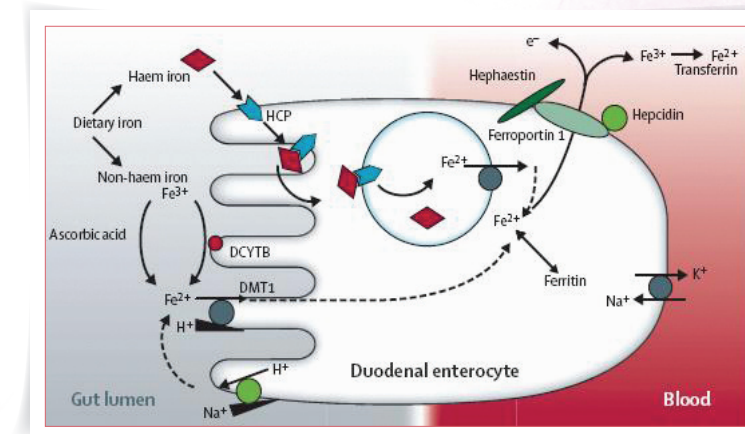
## 5. 철 결핍의 치료

생후 6개월 이후에는 철 결핍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유식을 통한 철 보충이 필요하다. 이유식은 모유나 분유 이외의 보충식을 하는 것으로, 첫 보충식으로 권장되는 음식은 쌀미음이다. 여기에 철분이 많은 음식을 첨가하게 된다. 철분이 많은 음식으로는 소간, 굴, 대합 조개, 새우, 소고기, 껍질 채 구운 감자, 말린 살구, 건포도, 닭고기, 계란노른자, 콩, 자두, 참치, 딸기, 햄, 아스파라거스, 토마토주스, 브로콜리, 토마토, 베이컨, 오렌지, 당근, 바나나, 사과 등이 있다. 생우유는 철분 함유량이 작아 철 결핍 예방을 위하여 12개월 이후에 먹도록 한다.

철 결핍 빈혈 치료의 기본은 체내 철분 보충과 원인의 교정에 있다. 경구 철분제는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공복 시에 흡수율이 높고,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투여하면 흡수율이 훨씬 떨어지게 된다. 오심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식간에 용량을 줄여서 투여해보거나 흡수율이 떨어지더라도 음식과 함께 투여하도록 한다.

## [결론]

철은 뇌 발달에 있어 신경전달, 에너지 대사 및 수초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영유아기의 철 결핍은 신경전달 물질의 화학적 변화, 뉴런 그물(neuronal networks)의 기질적 변화, 수초화의 변화 등과 관계되어 비가역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출생부터 생후 24개월까지는 급격한 뇌 성장과 함께 정신, 운동, 감정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초기에 철 결핍을 진단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를 마치고

벌써 계절의 끝자락인 겨울이 문을 두드리는 듯이 차가운 바람이 옷 속을 파고듭니다.

정읍시 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임철수입니다. 정읍시에서 내과개원의로 14년째 개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친선행사 후기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글이라고는 누군가의 의견이나 책을 읽는 거로 생각했지 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글재주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저에게는 전문의 시험 이후 가장 어려운 숙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저의 느낌을 자유롭게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여 컴퓨터 앞에 앉아보았지만 30분째 멍하니 있다가 이제야 몇 줄 적어봅니다.

2012년 10월 27일~28일 1박 2일 일정으로 천년고도 경주 블루원리조트에서 경북·전북 친선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전주에는 단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쁜 토요일 진료를 간신히 마무리하고 출발장소인 전주 호남제일문에 달려가니 전북의사회 명예회장을 포함하여 임원진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채우고서야 우리는 경주로 출발했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나는 들뜬 기분으로 버스 안은 화기에애했습니다. 대학 졸업여행으로 떠났던 경주와 설악산코스로 다시 여행하는 것처럼 마음에 커다란 풍선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주 명예회장님으로부터 경·전북 친목행사가 만들어진 유래가 27년 전 지역감정이 심한 1980년대 중반, 부산에서 운동 중 전라도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면서 지역감정이 극에 달할 때 전북·경북의사회 회장님이 뜻을 모아 서로 화해하고 상생하는 밑거름을 우리 의사회에서 시작하지는 큰 뜻을 세우고 시작한 게 벌써 27년째로 한 번도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역사의 한 모퉁이에서 선배님들의 뜻을 이어갈 수 있어서 기쁘고



임철수 회장  
전북 정읍시의사회

애정 어린 마음을 절절히 가슴에 담아왔습니다.  
분명 경북·전북의사회는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돈독해질 것이며 앞으로 우리들이 아무도 생각지 못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행복했습니다. 빗길에 차는 조심조심 경주로 다다르고 행사장인 블루원에 도착하여 짐을 들고 나서는데 당연히 행사장 안에 있을 거로 생각한 경북의사회 임원들 모두가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일일이 반겨주고 기쁨의 포옹을 해주시니 그 반가움과 고마움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우리들의 축제는 시작되었고 그중에는 반가운 얼굴도 있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금세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경·전북의사회가 27년을 맞이하여 성년이 되었으니 앞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제는 결실을 볼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찾았던 천년고도 경주는 늘 아름다운 불국사와 석굴암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토함산 그리고 첨성대 등 너무나 익숙한 유적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한, 수학여행에선 별로 맛이 없었던 경주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맛이 있고 풍성한 음식들이 전라도 못지않게 좋았습니다. 사실 다이어트를 위해 참았던 식욕이 터져 너무 많이 먹고 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배가 좀 나오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뜨거움 만남은 7080노래와 함께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계속되었고 영호남을 떠나 하나가 되었고 형제의 정을 느끼면서 그렇게 다정하고 아쉬운 밤을 보내고 모든 주변의 사물들이 고요하게 잠들고서야 속속로 향해 모자란 잠을 청해보았습니다.

요즘 의료계의 무거운 짐을 양어깨에 잔뜩 지고 있는 의협 노환규 회장이 축하해주시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고 달려오시어 앞으로 의료계가 국민

의 신뢰를 얻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득이 되는 의료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떠 운동하러 가서 만나보니 하루 저녁 사이에 모두들 형과 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싸주신 경주 황남빵, 안동 고등어, 포항 유기농 세제 등등 마음엔 사랑 가득, 양손엔 선물 가득. 역시 뭘 주면 좋아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은지 마냥 즐거웠습니다. 돌아오는 길가에 피어오른 코스모스도, 맑게 갠 가을 날씨도 모두 뒤로한 채 아쉬움을 남기고 경주를 떠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전북 익산에서 만나뵙기를 기원하면서...

친선행사 후기를 말하자면 백 가지 표현으로도 부족하겠지만 한마디로 행복했고 희망을 보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경북의사회 정능수 회장님을 비롯하여 원로원장님과 이사진 및 각 시군의사회 회장님의 뜨거운 환대에 애정 어린 마음을 절절히 가슴에 담아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에게서 앞으로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분명 경·전북의사회는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돈독해질 것이며 앞으로 우리들이 아무도 생각지 못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경북의사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핸드도 많이 주시고 그린에서 오케이드 잘 주신 경주시 조성범 의사회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의 미숙한 후기를 읽는 순간 모두들 행복하시길 빌어봅니다.

# 중년의사의 고백... 제가 환자가 되어보니...

존경하는 K 선생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는 선생님의 염려덕분에 언제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2012년을 마감하면서... 특히 올 한해는 의사인 제가 직접 환자가 되어본 후에 느낀  
점이 꽤 많았기에 몇 가지 소회를 담아서 검사검사 선생님께 문안인사 올립니다.

제가 의사가 된 지 어언 30년, 그 동안 진료에만 전념해오다가 막상 환자 당사자  
가 되어보니, 그동안 다소 간과했었던 환자들의 심경이나 심리상태를 좀 더 잘 알게  
되었더랬습니다. 환자들이 궁금해 하고 가려워하는 곳이 어디인지 꽤나 잘 이해하고  
있으며 스스로 과대평가(?)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별로 그렇지도 못했구나 하는 반성  
을 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니라 몇 건의 제 개인적 상황들 때문이었습니다.

감히 선생님 안전에서 제 나이를 언급 드리기 송구합니다만, 58세가 되도록 그 흔  
한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단 한 번도 안 해봤던 제가 올해 초에는 가족과 동료들의  
강력한 권유에 의하여 결국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그야말로 등 떠밀려  
마지못해 결정은 내렸지만 작은 고민이 슬그머니 시작되었고...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6월달로 예정된 만딸 혼사를 치르는데 애로점도 있겠다 싶은 마음  
에 결국은 8월이 되어서야 검사를 받았습니다. 무척 흔하게 발견된다는 용종(polyp)  
이야 아무 상관없지만, 만의 하나라도 악성종양이라도 진단된다면 어찌지? 뭐 이런  
걱정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약하디 약한 환자의 마음인가봐요.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mass 5개를 떼어서 조직검사를 보냈다는 얘기와 아울러, 그  
중 3개는 용종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2개는 조금 애매하니 (아마도 별다른 문제가 없  
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malignancy를 rule out 하기 위하여 조직검사 결과를 꼭 한  
번 봐야하겠네요~ 라는 내과 의사의 지나가는 투의 설명에 저는 약간 찝찝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정말로 나쁜 결과면 어찌지? 혹시 early stage가 아니면 어찌지? 나는야 뭐 어  
찌되어도 괜찮지만 남아있는 처자식은? 이런 걱정이 스멀스멀 뇌리에 박히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환자가 되어보니 그런 걱정마저 들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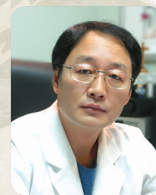
하루라도 빨리 결과를 봐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았기에 결국은 후배 병리과 의사에게  
빠른 판독을 개인적으로 부탁하기에 이르렀고, 곧이어 '여차저차 하지만, 그리 염려할

## 교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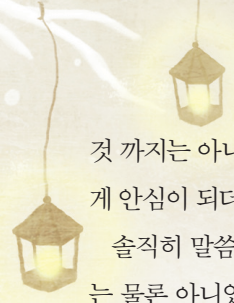
오래된 나무는 속이 썩어있었고  
더 오래된 나무는 속이 비어있었다.  
당신의 속은 어떻습니까.



최해곤 원장  
최해곤성형외과의원(경주)



정상윤 병원장  
포항여성병원(포항)



내년부터는 보다 더 정제되고 함축된 언어구사를 하면서 진료에 임할 생각이구요,  
입과 말로만 환자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정코 환자의 불안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잘 추슬러주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것까지는 아니다'는 진단결과를 듣고서야 확실하게  
안심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K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머리 싸매고 걱정할 것까지는  
물론 아니었지만 웬지 마음 한구석이 산뜻하지  
못한 찝찝한 느낌... 바로 그것이었습시다.

'아~ 환자들이 검사결과에 목을 매는 심정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흠...

그렇게... 제가 환자가 되어서 조직검사까지  
받아보니... 정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환자들이 자궁암 검사 등의 결과를 보러와서는  
곧잘, 결과가 신경 쓰여서 며칠간 잠도 못 잤느니  
어찌나 하면 제가 걸으려는 "그렇지요? 얼마나 걱  
정되었을까요?" 라고 웃으며 인사치레의 말을 잊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뭘 그렇게까지나 쓸데없는 걱  
정을?" 이라며 치부하고 말았는데, 그랬던 알파하  
고 건방진 마음은 제가 바로 주인공이 되어서 경험  
했던 일 때문에 한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  
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안심하라고 했던 모든  
말들은 단지 지나가는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았었  
다는 것을 스스로 실감하게 된 것이지요.

게다가 환자들이 소위 'Dr. 쇼팽'을 하면, '걱정 많  
이 되시니까 여러 병원을 다녀보는 심정을 100% 이  
해해요'라고 웃으며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좀 유별  
나네~' 라는게 솔직한 제 생각이었습니다만, 제가  
올해 들어 여기저기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하면  
서 환자입장이 되어보니... 살짝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병원 어느 의사에게 가면 내가 가장 빨리 나  
을 수 있을까? 한두 번 다녀서 끝날 문제도 아닐테  
니 병원이 너무 멀어도 곤란할건데~ 라는 생각들...

한편으론 여러 병원 홈페이지들을 전전하면서  
의료진의 special part를 꼼꼼히 살펴보고, 주변 동  
료의사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기 가라 저기 가  
보라는 권유에 안 그래도 얇은 귀가 더 얇아지고...

흠, 비록 Dr. 쇼팽이라기에는 다소 어폐가 있긴  
하겠지만 내가 평소에 비난하던 것을 나 스스로 지  
금 하고 있구나... 의사라는 나도 이럴진데 일반  
환자들이야 오죽하랴? 선생님, 제가 환자가 되어보  
니...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차저차하여 wife를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나  
니, 내용 뻘한 수술인걸 잘 알면서도 수술실 앞 복  
도를 드라마 주인공처럼 계속 왔다갔다 하며 기도  
를 하게 되고, 회진을 들어온 담당의사의 말 한마  
디 마디가 귀에 쫄쫄 들어오며 신경이 많이 쓰이는  
느낌... '아~ 환자 보호자의 마음이란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제가 보호자가 되어보니... 당장에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젠 제 나이도 결코 적지 않으며 경력도 좀 쌓  
였으니, 의료적인 분야에서는 낙제점까지는 아닐  
것 같고 최소한 중간은 되겠구나 하고 자평하고 있  
지만, 충분한 설명을 잘해주는 의사라는 측면에서  
는 어디가서 2등하면 억울할 것 같다는 자신감으로  
이제껏 의사생활을 해왔었지요. K 선생님도 잘 아  
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저의 유일한 취미는 음악이  
었잖아요? 피아노도 10년가량 쳐 봤던 테다가 그룹  
사운드 경험마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산부  
인과 의사가 되고나서부터는 제 취미는 의료상담  
이라고 까지 주장하며 정말 부지런을 떨었어요.

입 부끄럽지만 자화자찬을 좀 드리자면요, 90년  
대 초반에 '천리안'에서 수년간 의료상담을 맡은 결  
과로 상도 받았고요, 'NAVER 지식인' 의료상담 코  
너에서는 매주 발표되는 상담건수 1위 의사를 9  
개월 동안이나 줄곧 유지하기도 해봤을 정도이니  
이러한 제가 저희병원 홈페이지 상담코너에는 얼  
마나 목숨 걸었을까요? 저의 상담 기본원칙이 '짧  
은 질문, 빠르고 긴 답변'이었으므로 웬만하면 A4

용지 1~2장 분량의 답변을 썼고, 매일 밤 1시까지  
상담코너와 함께 살았거니와 한밤중에 잠이 깨더  
라도 반드시 PC를 켜고는 또 답변을 보냈으며, 서  
울에 학회를 가면 인근 PC 방을 찾아가서 답변을  
올리기도 했었고, 심지어 해외여행을 가셔도 상담  
답변을 달았을 정도이니~ 흠...

K 선생님... 저는 그런 게 의사로서 아주 잘하는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살았더랬어요.

뭘랄까... 의사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나  
할까요? 저는 스스로 뿌듯해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데, 답변을 길게 쓰며 설명만 많이 해준다고~ 꼭  
그것만이 정답은 결코 아니더라고요.

제가 환자 혹은 보호자가 되어서 진료나 시술을  
여러 차례 받아보니, 저를 맡았던 여러 선후배 의  
사들은 비록 말수는 저보다 조금 적었을지라도, 차  
라리 더 간단명료하고 핵심을 찌르는 설명들을 아  
주 멋지게 해주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귀에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제까지 환자들에게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  
이 했구나, 어쩌면 요점정리가 아니라 허점정리는  
아니었을까? 하는 일말의 후회마저도 들었지요.

유사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환자 설명용으로  
만들어 십여 년간 보안을 거듭한 파워포인트 슬라이  
드쇼 자료만 하더라도 천여 장이 되며 항상 그  
걸 이용해서 진료를 하거든요... 환자나 보호자에  
게 20~30분씩이나 강의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경  
우가 거의 매일 같았는데... 이만큼 설명해주  
면 완벽에 가깝다는 자화자찬의 늪에 푹 빠져있던  
제가요... 알고 보니 말만 많이 해 줄줄 알았던 것  
이었고, 항상 우스갯소리를 잘해주어서 걸으려는

환자마음을 편하고 즐겁게 해 주었고, 자연유산  
이 되었다고 눈물 흘리면 얼른 화장지 한 장 건네  
줄 줄만 알았었지... 실상은 제가 얼마나 변죽만 울  
리고 환자의 심적상태를 깊게 고려하지 않았는지  
를 올해 들어서 뼈저리게 느끼고 말았어요. 제 입  
과 행동이 부지런했던건 맞지만 과연 제 가슴이 얼  
마나 움직였을까? 자문해보니 자신있게 긍정적인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존경하는 K 선생님...  
나름대로는 30여년을 의사로서 열심히 살아왔  
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스스로 환자가 되어  
보기 전에는 단지 피상적으로만 느껴왔던 '환자의  
마음', '환자의 생각'이라는 측면을 제가 올해들어  
몸소 체험하고 나서 새롭게 느낀 점이 여러모로 많  
았습니다. 물론 저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자  
세한 설명을 많이 해주는 점을 무턱대고 없애거나  
많이 줄이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보다 더 정제되고 함축된 언어구사를 하면서 진료  
에 임할 생각이구요, 입과 말로만 환자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정코 환자의 불안이 무엇인지를 꿰뚫  
어 잘 추슬러주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더 훌륭한 의사, 더  
멋진 의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  
겠다는 약속을 감히 선생님께 올립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길 진심  
으로 바라며 금명간에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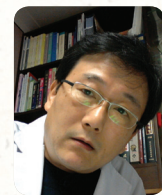
# 오일장에는 삶의 이야기가 있다.

농경사회였던 옛날에는 장날이 곧 쉬는 날이었다. 즉 일주일이 5일로 4일은 부지런히 일하고 5일째는 읍내에 큰장이 열려 생필품도 서로 교환하고, 짝어 두었던 별난 음식도 먹고, 행여 누구라도 만나면 사돈의 팔촌까지 안부도 묻고, 재미난 볼거리도 구경하고 정보도 나누고 하면서 해가 질녘까지도 시끌벅적 왁자지껄했다. 이렇듯 오일장은 시장의 기능만이 아니라 우리네 삶의 모습을 그려낸 경제문화의 장이었다.

다만 문화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화폐가 대신하고 인터넷과 모바일폰이 생겨 나면서 오일장의 의미가 점차 퇴색해 가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고 아쉽기만하다.

어린시절에는 시골 큰집에서 방학을 보낼 시간이 많았고 놀거리가 자연과 더불어 많으면 귀하던 때라 장날구경의 재미를 하루하루를 세어가며 기다린 적도 있었다. 당시 신작로 따라 장터를 오가면서 달리던 자전거도 신났지만 참외밭에서 서리해서 먹던 혀끝의 달콤함도 오일장과는 또다른 추억이었다.

오일장에서는 물물교환으로 떡이나 엿뿐 아니라 고무신도 바꿀 수 있었으며, 구석 구석을 돌아다니다 보면 볼거리도 많아 뱀장수아저씨의 건강강의(?) 유랑극단의 서커스쇼, 광대들의 우스갯짓 등 정신없이 웃고 즐기다가 행방을 놓치기도 하고 또 동행자들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보면 시간은 후딱 지나버리고 하루는 이내 어스름의 커튼을 내리고 장터사람들은 하나둘씩 흩어지며 파장을 서두르기 시작한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내내 장터에서의 흥분된 기분은 큰엄마의 언짢은 기색을 보기까지는 가시질 않았다. 사실 장이 한달에 여섯 번이나 돌아오니 곳간의 쌀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큰엄마는 농반진반으로 쥐를 닦하시곤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속내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아린 추억으로 남아있다. 당시 전국적으로 쥐가 많아 양곡손실이 엄청났고 이는 식량난과 나아가서는 곧 경제발전과 직결되었기에 쥐와 관련된 구호 짓기, 포스터그리기, 드디어는 범국민 쥐잡기 운동으로 확산되어 잡은 쥐의 꼬리를 잘라 가져오는 숙제로 인센티브를 주었던 기억이 난다. 특히 장터에서는 쥐와 사람이 같이 다닐 정도였으니까.



김인정 원장  
한국재통의원(영천)

오일장은 엔터테인먼트다.  
꿈틀거리는 삶의 현장으로, 볼거리 많은 대중 놀이터로,  
말 많은 토론의 장까지 시장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영천에도 1곰탕 2돔베기로 유명한 2일, 7일의 오일장이 선다. 대형마트의 진출로 시장의 기능은 위축이 되고 건물의 현대화로 그때의 정취는 퇴색했다하지만 아직도 오일장에서는 우리네 삶의 이야기가 묻어있다.

새벽이면 자리다툼이 끝나 왕복 8차선대로가 편도 일차선으로 좁혀지고 저마다 땀으로 일궈낸 계절 수확물을 내고는 자식자랑하듯 자기네 물건들을 선전한다. 공급자와 수요자와의 환관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약속이나 한 듯이 대포집이나 곰탕집으로 몰려들어 뜨끈뜨끈한 곰국물과 파전에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면서 서로들 못 다한 얘기와 묻어 두었던 속사정을 털어 바쁜 와중에도 여유를 보이는 것이 오일장의 살아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오일장날은 지역 대소사로 노인잔치를 하든, 큰장잔치를 하든, 선거후보 유세를 하든 간택일의 절대적 기준이 되니 홍보비용의 절감도 더 해준다. 그리고 장날에는 나쁜 꿈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데 피해를 입은 촌로들은 지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하소연하다 귀담아 들어 주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서로 말문을 트고 이내 친구가 된다.

이렇듯 오일장은 엔터테인먼트다. 꿈틀거리는 삶의 현장으로, 볼거리 많은 대중 놀이터로, 말 많은 토론의 장까지 시장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치고 쾅과리치며 옛장수아저씨의 가위질소리에 장단 맞추던 시대는 디지털 멀티사운드와 현란한 나레이터 모델들로 변천했지만 정서만큼은 그 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일장을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이라 믿는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분이 있는데 참으로 익살스럽다. 자그마한 키에 거칠게 패인 주름, 빼박한 모자, 달랑한 바지 멀리서 봐도 영락없이 그 할아버지다. 장날이면 십팔번으로 하시는 말씀 “과연 영천장 크다”. 하루는 “오늘은 아가씨들 조~케따.”하시는데 영문을 모르고 밖을 내다보니 고추포대가 줄을 지어 서있다. 팔순이신 할아버지는 농담도 잘 하시는 오일장의 증인이요 자칭 전설이시다. 어쩌다 보이지 않는 날이면 궁급하다. 그런 할아버지가 아프시다. 오일장을 누비시던 어른들이 이제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시고 걸음조차 힘들어 하신다. 이제 우리가 오일장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어갈 차례다.

뮤지컬도 좋고 오페라도 좋다.  
하나 우리 어른들 삶의 이야기가 묻어 있는 곳,  
거름지고서라도 한번 가 볼만하지 않을까!.

# 다사다난했던 2012년 임진년

다사다난했던 2012년 임진년(壬辰年)이 지나고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를 맞았다.

새해가 되면 지난 해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작심삼일(作心三日)의 새로운 계획을 짜는 일이 매년 반복되지만, 올해만은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는 일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목은해니 새해니 구분하지 말라’는 선사의 말씀과는 달리, 새해의 첫 아침에 계획을 세우고 새 기운을 채우는 기쁨은 어쩔 수 없는 속인의 작은 즐거움일게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개인적으로나 사회라는 큰 테두리에서나 많은 일이 있었던 해였다.

개인적인 사소한 일들은 제쳐두더라도, 의사회로서는 하나되는 꿈틀거림이 있었던 한해였고, 우리나라로서는 대선이라는 큰 틀의 변화가 있었던 한해이기도 했다.

계사년(癸巳年)에는 의료환경이 조금 더 개선되고, 주위 이웃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그런데 행복한 삶이란 어떤 건지를 물었을 때의 대답은 천차만별이다.

예전에 아내가 물었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과연 내가 인생에 추구하는 바는 무엇일까?’

예전에 답을 찾았다고 생각한 것이 어느 순간 희미해져 버린다.

스님과 신부님이 매일 마음을 닦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이유처럼, 잠시 마음을 놓는 순간 예전에 가졌던 생각들은 빛바랜 사진처럼 되어버리고, 일상적인 생활의 쳇바퀴 속을 달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불현듯, 자연이나 사람의 모습이 내가 살아가야하는 방식을 이야기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사람의 모습은 크게 눈과 귀와 코, 입 그리고 이마로 구성된 얼굴과 사지(팔다리)와 심장이 있는 가슴으로 되어있다. 거기에는 각각에 해당되는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 비로소 나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김우석 원장  
포항태항외과의원(포항)

예를 들면, 눈에 해당되는 일이 미술감상이나 그림, 사진찍기와 같은 활동일 것이고, 귀에 해당되는 것이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다루는 활동일 것이며, 입에 해당되는 것이 글을 읽거나 쓰는 일이 될 것이다. 코에 해당되는 것이 좋은 식생활을 갖은 것이며,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명상과 사색을 하는 일이고 팔다리에 해당되는 것이 운동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슴에 해당되는 일은 종교나 선행에 관한 것이 아닌가 싶다.

모든 것을 하기에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 것 같아 보이지만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주위에 가까운 곳을 산책하거나 밤에 조금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중에 가슴에 해당되는 일이 아내가 말한 ‘내가 추구하는 바’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남모르는 봉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선생님들이 참으로 많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1년 전 겨울 지인이 말한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지난 5년간, 작은 돈이지만 매달 장학금을 주어진 아이가 있다고 했다. 올해 한동대 장학생으로 들어갔다고... “어휴, 좋은 일했네,” 툭 던진 말에 그는 진지하게 아쉬움이 너무 크다고 했다.

내용인 즉슨, 5년 전 그 학생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사교육을 받을 형편이 안되는 아이 한명을 소개받았다고 한다. 그 아이가 다른 과목은 혼자 공부해 보겠는데 수학은 혼자 공부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안타까운 마음에 수학학원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단다.

“학교에서는 학교 진도내에서 공부하는 하지만 1년을 미리 선수(先修)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래.

그래서 지원을 매달 해주게 되었어. 간혹 전화통화만 하다가, 이번에 아이가 합격을 하게 되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말이 서울이나 의대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집안형편 때문에 어차피 합격을 하더라도 못 보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2때 방향을 했다고 하더군”

그래서 성적이 떨어졌고 3학년때 겨우 마음을 추슬러 공부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하더라. 장학금을 받아야 대학에 갈수 있으니 한동대에 들어간 거라고...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래서 만약 개가 서울이나 의대에 간다면 1년치의 입학금과 기숙사비를 대어준다고 했더라면... 좀 더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았을까? 사실 내아이는 학원에 많이 다니면서도 가기 힘든데, 개가 거기를 갈 수만 있다면 학비를 대줄 용의도 있었는데...”

아쉬움이 크다는 이야기였다. 또한 고마운 것은 도리어 자기라고.. 이런 일로 느낀 좋은 감정과 자기가 세상에 빛을 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덜게 해준것이 그 아이라는 말이였다.

그 때 듣고 있던 한 후배가 말했다.

“그런 학생이 많을 텐데 우리가 뜻을 모아 지원을 하면 어떨까요? 일부는 장학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학습비를 지원하고...”

사실 봉사단체나 지원단체는 많지만, 중·고교 우수학생에 방과후 개인 학습을 지원하는 단체는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에서 빈익빈 부익부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한두리 모임이다. 누구를 도운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내가 얻은 빛을 갚기 위함이라는 취지이다.

또한, 우리가 주는 도움이 후에 그 아이가 들을

살아온 날보다 남은 생애가 더 짧은 나이가 되었다,  
올해는 좀 더 보람차게, 잘하는 것은 좀 더 잘하고 못하거나 안한 것은 하나씩 만들어나가는  
계사년(癸巳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도우는 것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것이 한두리의  
의미이다.

초등학교선생님으로 있는 후배가 총무를 맡아  
주었고, 대표없이 회원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행히 도움을 주시는 분이 많아 10여명의 아이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엔 개천에서 용나듯, 가난한 아  
이들도 서울대 및 우수한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았  
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교  
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서울대나 연고대 이상의 대  
학을 가는 일은 현재의 교육환경으로는 쉽지 않다.  
머리도 뛰어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가난 때문  
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이 못 간다면 그 무  
엇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것  
은 아직도 사회적 지원에서 음지에 있다. 왜냐하  
면 학생의 사교육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 국가적으  
로도 힘들고 공교육상 도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방과 후 수업도 대부분 학과 진도내에서  
만 하게 되어 복습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초중  
학교때 좋은 성적이 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사교  
육을 통해 1년을 앞당겨 공부하는 가정형편이 좋은  
아이들과의 경쟁에서는 밀릴 수 밖에 없다. 즉 어  
느 정도의 성적은 낼 수 있지만 아주 좋은 성적을  
내기란 너무나 힘든 것이다.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자신이 목표로 할 수 있는 대학에 갈수 있는데, 그  
것이 없어서 못 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으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높으

신 양반들의 일로 맡기고 우리는 일단 현실적으  
로 해결해보자며 시작한 것이 벌써 1년이 지났다.  
돌이켜보면, 별의 별 일이 많았지만, 소기의 성과  
를 본 것 같다. 나로서도 여기에 조그맣게 힘을 보  
태게 된 게 그나마 지난해를 돌이켜보아 아쉬움을  
조금 더는 일이 되었다.

경상북도 의사회보에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  
았다. 글을 쓸 소재(素材)도 없고, 둔필(鈍筆)인지  
라 여러차례 거절하다가 불가불 일을 맡게 되었다.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좋은 모임을 소개해야  
겠다는 생각에 두서없이 글을 적었다.

이런 모임이 포항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다른 지  
역, 아니 우리나라 곳곳에 자생적으로 생기고 그런  
모임과 관계를 맺고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자  
기분야에서 한 부분을 맡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운  
다면 참으로 멋진 것 같다.

살아온 날보다 남은 생애가 더 짧은 나이가 되었  
다, 올해는 좀 더 보람차게, 잘하는 것은 좀 더 잘하  
고 못하거나 안한 것은 하나씩 만들어나가는 계사  
년(癸巳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영덕을 즐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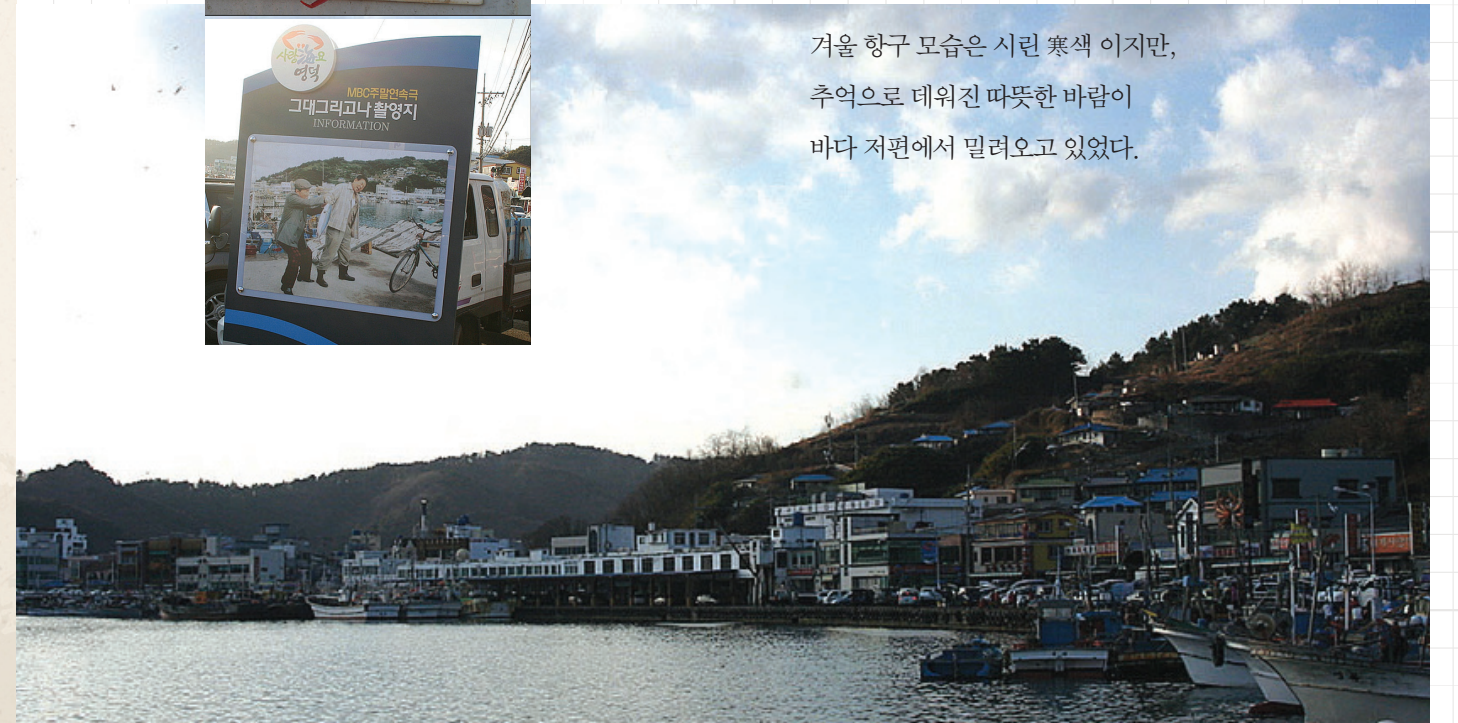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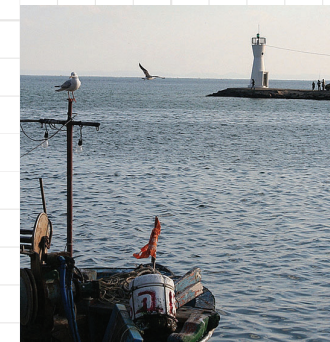
글·사진  
임종식 (영천성모병원 내과 부장)

[ 겨울포구에서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항) ]

‘그대 그리고 나’ 촬영이 이루어진 작은 항구마을...  
선착장의 주차장에 차를 두고, 늘 그래왔듯이 둘러본다.  
끼룩끼룩 갈매기의 울음소리,  
홍정을 벌이는 손님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 한편에 낡은 드럼통의 녹슬은 몸에서는  
뜨거운 입김을 토하고 있다.  
잠시 손을 녹여본다.

정박해있는 몸집이 커다란 오징어잡이 배에 올라갔다.  
소금기 배인 나무바닥을 걷다보니,  
불현듯 초등학교때 다니던 교실의 마루바닥이 생각이 났다.  
토요일 오후 아무도 없던 그 교실에서 홀로 남아있던 그때..  
반질반질 윤이 흐르던 그 낡은마루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었다..  
생각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  
나무바닥을 걷는 느낌이 좋다...

겨울 항구 모습은 시린 寒색이지만,  
추억으로 데워진 따뜻한 바람이  
바다 저편에서 밀려오고 있었다.



[ 고향의 겨울강가에서 (경북 영덕군 오십천 강가) ]



●○ 고향 아닌곳에서  
탕자(蕩子)아니었던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때로는 탕자였던 그 상처들이  
물보라 일으키며 떼지어 돌아보는  
무뚝뚝한 연어들처럼  
그리움에 등 떠밀려  
기다림에 등 떠밀려 간다.

●○ 햇별의 마지막 숨소리가 노을이라고 했던가!  
산너머로 사라지는 숨소리를 시각적으로 담아내 본다.  
인위적이 아닌 노을의 황홀함은 겨울강가를 충분히  
따뜻하게 해주는 듯하다.



●○ 시시각각 강가의 저녁놀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간다.  
큰형님과 아이들은 얼어붙은 강가에서 겨울과 놀이를 즐긴다.  
어린시절 내가 그리고 내 형님이 뛰어 놀았던 그 강가에서  
지난 춥고 가난했던 겨울을 기억하며 여기에 있다.

고향의 산하는 늘 이렇게 우리를 품고 있었다...  
산등성이에 해질녘은 너무나 아름다웠는지...

그해 겨울..

고향의 오십천 강가에서  
임종식



- 햇별이 되었거나 노을이 되었거나 - / 이기철

들판에 흩어져 피는 꽃들에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놓은 사람들은  
어언 제 이름도 꽃이 되었거나 꽃술에 취해 잠든 나비가 되었거나

한 해 봄에서 가을까지 날아가도 제 그리움에 닿지 못한

작은 새들에 이름을 붙여준 사람들은

제 이름도 어언 새가 되었거나 오리나무 가지에서 우는

새의 울음이 되었거나

도라지꽃을 피워놓고 혼자 잠든 산과 산에 그 키와 봉우리에

알맞은 이름을 붙여놓은 사람들은

벌써 산이 되었거나 산을 씻으며 흘러가는 강물이 되었거나

산 너머 또 산 너머 잠들어 있는 마을에 제가꿈 이름을 붙여준 사람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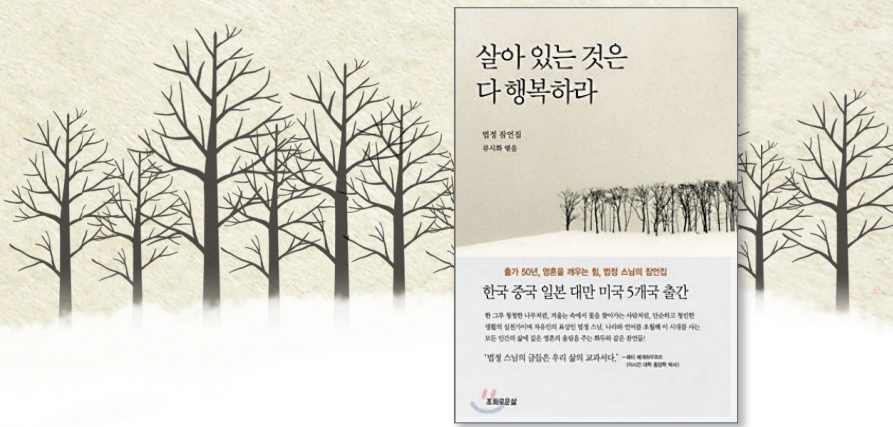
벌써 제 이름도 햇별이 되었거나

햇별의 마지막 숨소리인 노을이 되었거나



#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잠언집 | 류시화 엮음  
조화로운삶 도서출판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애초의 그 하나마저도 잃는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에 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늙음이 아니라 녹스는 삶이다.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살 때는 삶에 철저히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히 그 전부가 죽어야 한다…….”

이 책은 많은 이들이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 법정 스님의 글과 법문들에서 130여 편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류시화 시인이 엮고, 세계적인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명상적인 사진들로 본문과 표지를 장식했다.

줄린 눈으로 아침에 일어나 허겁지겁 출근 준비를 하고 병원에 와서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진료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23분의 짧은 시간만으로도 삶의 방향을 고민할 수 있고 소나무 숲에서 며칠 산림욕을 경험한 것처럼 영혼을 맑게 하는 글들이 인상적인 사진과 어우러져 그 깊이를 한층 더해 준다.

“저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답게 살라. 내가 지금 순간순간 살고 있는 이 일이 인간의 삶인가,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 스스로 물으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내 삶을 만들어 주는가.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갈 뿐이다.”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나누라.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은 있다. 근원적인 마음을 나눌 때 물질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세속적인 계산법으로는 나눠 가질수록 잔고가 줄어들 것 같지만, 출세 간적인 입장에서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진다.”

“혹시 이런 경험은 없는가. 텃밭에서 이슬이 내려앉은 애호박을 보았을 때, 친구에게 따서 보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또는, 들길이나 산길을 거닐다가 청초하게 피어 있는 들꽃과 마주쳤을 때, 그 아름다움의 설렘을 친구에게 전해 주고 싶었던 그런 경험은 없는가?”

이 책은 내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모, 형제, 자식, 이웃, 친구, 환자 등)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인생의 기로에서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내가 상대적인 상실감이나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 지 등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침반과 같은 도움을 주었다.

“지식이 인격과 단절될 때 그 지식인은 가짜요, 위선자이다. 우리는 끌려가는 짐승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다”는 그분의 말씀처럼 우리 의사회원 여러분께도 이 책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또 마음먹은 대로 실천해 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복수 원장  
경주시의사회 홍보이사  
(한사랑이비인후과의원)



발기부전치료제 국산 **팔팔정**에 이은

씹어먹는

# 팔팔추정

# 50mg 출시!



물 없이 씹어먹는  
**팔팔추정 50mg**



값 싸고 믿을 수 있는  
**팔팔정 50mg**



※ Sildenafil 허가상 권장용량은 1회 25mg~**50mg**입니다

##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추방 캠페인

환자, 의사, 약사, 정부, 제약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 NO.1!



부신피질호르몬제

## 피디<sup>정</sup>

메틸프레드니솔론



**원료약품의 분량** 1정 중

메틸프레드니솔론(U,S,P) ..... 4mg

**효능·효과**

- 1.피부질환 : 천포창, 중증 다형성 홍반(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박탈성 피부염, 수포성 포진양 피부염, 중증 지루성 피부염, 중증 건선, 균상식 육종
- 2.알레르기성 질환 : 기관지 천식,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혈청병, 계절성 또는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약물과민반응
- 3.교원성 질환 :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루푸스 신염), 전신성 피부근염(다발성 근염), 급성 류마티스성 심염
- 4.내분비 장애 5.류마티스성 장애
- 6.안과 질환 7.위장관계 질환 8.호흡기계 질환
- 9.혈액 질환 10.악성 종양성 질환 11.부종성 질환 12.신경계 질환 13.기타

**보 함 코 드** A21950881

**피디<sup>정</sup>**의 주성분인 **Methylprednisolone**은 기존 Prednisolone보다 **항염효과**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Mineralocorticoid의 작용이 약하므로 부종 발생 등의 부작용이 낮은 부신피질호르몬제제입니다.

※제품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64 대동테크노타운 13차 3층 / TEL:02)2109-3300 • FAX:02)2109-3388



**중외신약**